

漢 帝國과 주변 여러 민족*

김효진**

머리말

- 一. 漢과 주변 諸民族의 관계
 - 二. 漢 帝國的 구조
-

머리말

漢 帝國은 郡縣制와 封建王國制를 병용한 郡國制를 시행하였다. 本稿에서는 郡國 밖에 존재한 민족 집단·국가와 漢의 관계, 그리고 郡國 내에 존재한 異民族 집단과 漢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漢이 內·外라는 구별을 세우는 데에 中華思想이 관련된다는 점이다. 內란 王國制와 郡縣制가 깔려 있는 지역에 「內臣」¹⁾으로서 官僚·王·侯는 물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漢의 禮·法을 받드는 分子이다. 또한 外란 漢과 직접 관계를 가진 君主만이 漢의 禮·法을 받들고, 그 지배 아래에는 민족 독자의 禮·法이 행해지는 지역의 分子로, 이것이 「外臣」²⁾國이다.³⁾ 또

* 이 글은 ‘栗原朋信, 1970, 『漢帝國と周邊諸民族』, 『岩波講座 世界歴史4 古代4(東洋篇) 東アジア世界の形成 I』, 岩波書店’을 번역한 것이다.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중원학연구팀 연구원

1) 本稿 468쪽을 참조바란다.

2) 前注 (1)과 같다.

3) 일찍이 나는 「外臣」에는 「禮」만 미치고 「法」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訂正한다.

德을 흠모하여 조공하는 分子도, 外의 부분에 속한다. 단 현실에는 內·外의 중간적인 성질 分子도 있고, 또 외신과 조공국의 중간에 속하는 分子도 있어 복잡하였다.

본고는 서론에서 漢과 주변 여러 민족의 관계를, 漢이 준 封爵·授官 사례를 열거하여 서술한다. 다음으로 그 사실관계를 입각한 漢帝國이 이민족에 대해 준비하고 있던 질서 구조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 구조의 外延上 한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구조를 관통하는 이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 본고에서는 「粵」字는 「越」字로, 「已」字는 「以」字로, 「烏丸」은 「烏桓」으로, 烏孫의 「昆弥」 「昆靡」는 「昆莫」으로 통일한다.

一. 漢과 주변 諸民族의 관계

1. 漢과 동북 諸民族의 관계

(1) 漢과 朝鮮의 관계

『史記』律書에는 漢文帝가 즉위한(前 180년) 무렵 장군 陳武 등의 議가 실려있다.

「남월과 조선은 全秦 때 스스로 내속하여 臣子로 되었다.」

라고 한다. 조선은 통일 왕조 秦의 지배를 받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秦은 朝鮮에 군현을 세우지는 않았다. 秦의 직접 지배는 遼東郡까지 이기 때문에, 문장 중에 「내속하여 臣子로 되었다」고 한 것은 秦의 외신, 즉 군현 밖의 臣屬者로 났다는 뜻이다.

『史記』『漢書』朝鮮傳에 따르면, 漢初 燕人 衛滿이 조선으로 망명하여, 箕準의 조선국을 빼앗고 수도 王險城(平壤)에 근거하였다.

이것이 衛氏朝鮮國의 시작이다. 그 뒤 漢 惠帝·呂后 시대(B.C. 195-180)에 위만은 「外臣」으로 됐다고 명기한다. 眞番 지방도 위만에 속해 있었는데, 武帝 때 위만의 孫 衛右渠는 眞番과 辰國이 漢으로 上書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때마침 前 128(元朔 元)년 東夷의 薺(穢)君 南閩가 위우거의 지배에서 벗어나, 280,000 口를 거느리고 漢의 요동군으로 내속하였다. 이 땅을 武帝는 蒼海郡으로 하였다(『漢書』武帝紀). 이 郡은 翌 翌年 폐지됐지만, 예군 남려의 내속은 漢과 조선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음에 틀림없다. 흉노의 左臂를 끊는다는 목적도 있어, 前 109(元封 2)년 武帝는 海陸 兩路로 大軍을 보내 朝鮮을 토벌하였다. 翌年 우거는 살해되고 왕험성도 함락당하였다. 漢은 그 땅을 4군으로 나누어, 군현제도에 따라 직접 통치하였다. 왕험성을 朝鮮縣이라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에 樂浪郡을 두었다. 그 동북에는 玄菟郡을, 南으로는 眞番郡을, 게다가 낙랑군의 東方으로, 日本海에 접한 지방에는 臨屯郡을 두었다. 그 뒤 前 82(始元 5)년 昭帝는 현도군을 서쪽으로 옮기고, 진번군과 임둔군을 폐지하였다. 임둔군에 속해 있던 嶺東 7현은 樂浪東部都尉 관할로 옮겼다(『史記』朝鮮傳. 『漢書』朝鮮傳·昭帝紀. 『後漢書』東夷傳).

위씨조선국은 10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멸망하였다. 武帝는 위우거의 子 衛長을 幾侯, 다른 조선의 유력자인 尼谿相 參을 漑清侯(1,000 戶), 將軍 王峽을 平州侯(1,480 戶), 相 韓陶를 菽菹侯(540 戶), 相 路人의 子 路最를 涅陽侯에 봉하였다. 이들은 『史記』 『漢書』의 功臣表에도 보이고,⁴⁾ 封국은 內郡에 있었기 때문에 內臣의 列

4) 『漢書』卷17, 景武昭宣元成哀功臣表에 따르면 衛右渠의 子 「衛長」은 「張洛」으로 되어 있다. 『中國古今地名大辭典』(商務印書館, 1931年)에 의하면 幾城은 河北省 大名縣 동남쪽, 漑水는 山東省 臨淄縣 서쪽, 平州는 山東省 萊蕪縣 서쪽, 涅陽은 河南省 鎮平縣 남쪽에 해당한다. 「菽菹」는 「荻菹」라고도 한다. 『史記索隱』에는 「渤海郡에 있다」고 한다. 또 『史記』 功臣表에 封戶의 記載가 없고, 『漢書』 功臣表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하 後者에

侯로 뒀을 것이다.

(2) 고구려의 대두

이상 동북 방면의 형세는 전한 말기로 되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그것은 南滿州의 수렵·유목민인 扶餘族 중 나타난 高句麗이다.

『漢書』王莽傳에 따르면, 漢帝國을 찬탈하고 新帝國을 세운 王莽은 9(始建國元)년 사자를 보내 高句麗王과 夫餘王을 모두 侯로 격하하고 印綬를 주었다고 한다. 이는 왕망 특유의 지나친 중화 의식 때문이었다. 이 정책은 실패했는데, 격하했다고 하는 사실은 전한 말에 高句麗王·扶餘王이 이미 존재했으며, 漢은 이를 공인한 것을 보여준다.

왕망의 처치에 분개한 고구려는 곧바로 이반하였다. 그 외 동방 민족도 왕망 정권에서 이탈하였다. 『後漢書』光武帝紀를 보면, 낙랑군에도 일찍이 토착 漢人⁵⁾으로 짐작되는 王調 정권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後漢으로 바뀌자, 30(建武 6)년 光武帝는 王遵을 낙랑군 태수로 임명하여, 왕조 정권을 쓰러뜨리고 낙랑군을 회복하였다. 『後漢書』東夷傳에 따르면, 고구려도 사자를 보내 조공했다고 한다. 47(建武 23)년 고구려의 사자가 낙랑군으로 와 내숙한 사실은, 후한의 외신으로 된 것이다. 단 고구려의 叛服은 지속되고, 점차 국력을 늘려 北部朝鮮으로도 위력을 뻗었다.

(3) 韓人과 倭人

후한 시기 낙랑군 지배는 주로 반도 서부의 대동강 유역에 이루어졌다. 『後漢書』東夷傳에 따르면, 52(建武 28)년 韓의 廉斯인 蘇

따라 기록하였다.

5) 樂浪郡의 土着 漢人에 대해서는, 三上次男, 1966, 「樂浪郡社會の支配構造と土着民社會の狀態」,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참조

馬諛가 내속했다고 한다. 광무제는 이를 漢廉斯邑君으로 봉하고, 낙랑군에 속하게 하며 四時朝謁시켰다. 이 사례는 韓族으로 봉하면서도 封君制를 취해 외신으로 한 예이다. 당시 반도의 남부에는 韓人이 거주하고, 最南部에는 倭人도 雜居하여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다.

30(建武 6)년 낙랑동부도위가 폐지되고, 영동 방향의 수렵·농경하는 東沃沮·穢·貊 등 민족에 대해서도 후한은 간접 통치를 취하였다. 縣中의 수장을 縣侯로 봉하고, 또 邑君·邑長·三老 등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에게도 印綬를 주었다.⁶⁾ 이 官爵號를 가진 자는 魏代로 되어도 남아 있었다(『後漢書』東夷傳, 『魏志』東夷傳). 조선 해협 남쪽에는 倭人の國이 있었다. 『漢書』地理志에 따르면, 前 1세기대 倭人の國은 100여 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歲時」 즉 정기적으로 낙랑군에 獻見했다고도 한다. 후한으로 되자 57(建武中元 2)년 春正月 倭의 奴國王이 사자를 낙양으로 보내 공헌하였다. 이때 광무제는 사자를 통해 奴國王에 印綬를 주었는데(『後漢書』光武帝紀·東夷傳), 1784(天明 4)년 筑前 志賀島の 岬崎에서 발견됐다고 전하는 「漢倭奴國王」이라고 새겨진 金印⁷⁾이 이 印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印은 蛇紐로, 윗부분에는 「漢」字가 있다. 마지막에 「印」「章」이라는 1字를 빠뜨린 것은 일반 外臣의 왕에 사여된 印의 通則 때문일 것이다. 일반 외신의 王印은 龜紐로, 위에 「漢」字를 칭하고, 아래에 「印」「章」이라는 1字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⁸⁾ 아마도 倭의 奴國王은 漢의 외신과, 臣屬하지 않은 조공국의 중간에 해당하는 지위로 대우받았을 것이다. 『後漢書』東夷傳에 따르면, 107(永初 元)년에도 倭國王 帥升 등이, 生口 160명을 바치고 謁見을

6) 後漢·三國時代の 韓·穢·貊 民族과 邑君·邑長 및 그 印綬에 대해서는 岡崎敬, 1968, 「『夫租穢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7) 岡崎敬, 1968, 「『漢倭奴國王』金印の測定」, 『史淵』 100.

8) 栗原朋信, 1969, 「漢帝國と印章」, 『秦漢史の研究』, 吉川弘文館.

원했다고 한다.

(4) 漢와 烏桓

중국의 동북에 해당하는 熱河·興安 兩省 方面에서는 예전부터 東胡가 살며 읍락을 만들어 수렵·목축 생활을 하고 있었다. 『史記』 『漢書』 匈奴傳에 따르면, 漢 初, 흉노 冒頓單于가 이를 병합하였다. 이 東胡가 뒤의 烏桓(丸)·鮮卑로 되어 활동한다.

『後漢書』 烏桓鮮卑傳에 따르면, 한 무제는, 흉노의 左臂를 토벌할 때, 오환을 동북 5군의 塞外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또 護烏桓校尉를 두고, 節을 주어 통제하도록 하였다. 叛服은 일상이었고, 흉노가 오환을 합쳐 漢에 대항하려고 하는 형세도 변하지 않았다.

후한으로 되면, 49(建武 25)년 遼西 烏桓大人 郝旦 등 922명이 무리를 거느리고 귀순하고, 낙양으로 돌아와 조공하였다. 광무제는 학단 등 81명을 王·侯·君·長으로 봉하여 장성 내에 살게 하고, 緣邊 諸郡에 배치하였다. 漢 郡縣 내에 살고, 또 종족의 長 지위를 보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王·侯·君·長은 그 밖에도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성질은 內臣과 外臣의 중간적인 듯하다. 그 점은 뒤에 서술한다.

그 뒤 잠시 無事하였다고 한다. 109(永初 3)년 漢으로부터 率衆 王에 봉해진 雁門郡 烏桓의 無何가, 선비·흉노 병사와 함께 五原 郡으로 침입하자 이를 격퇴하였다. 뒤에 오환의 大人 戎末廆가 후한으로 귀부했기 때문에, 안제는 이들을 親漢都尉로 임명하였다. 『續漢書』 百官志에 따르면, 「率衆」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王·侯·君·長은 「四夷國王」 아래에 기록되어 있어, 외신적 요소를 가졌다. 「漢」 「親漢」이라는 말을 쓰는 官爵號도 마찬가지이다.⁹⁾

桓帝(재위 146-167) 무렵부터, 후한의 勢威가 쇠퇴하기 시작하

9) 王國維, 1956, 「尼雅城北古城所出晉簡跋」, 『觀堂集林』卷14, 藝文院書館, 臺北.

였다. 오환의 활동도 격렬하게 되었다. 132(陽嘉 元)년 오환의 咄歸 등은 功에 의해 順帝로부터 率衆王·侯·長에 봉해졌고, 大人 중에는 스스로 왕을 칭하는 자가 항상 있었다. 187(中平 4)년 中山郡의 前 太守 張純이 후한을 배신하고 오환으로 들어갔다. 이후 天安定王을 자칭하고 오환 諸部の 元帥로 됐지만, 곧 漢軍에 평정되었다. 이는 모두 『後漢書』 烏桓鮮卑傳에 보인다.

『魏志』 東夷傳에 따르면, 후한 말, 冀州牧 袁紹가 거짓으로 獻帝의 명을 칭하여 「單于」號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한 오환의 대인이 동시에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세력이 왕성했던 반면, 또 통일일은 곤란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5) 漢과 鮮卑

선비도 흉노와 함께 漢을 침입하다가, 후한에 49(建武 25)년 비로소 사자를 보내었다. 또 54(建武 30)년 선비의 大人 於仇賁·滿頭 등이 種人을 거느리고 낙양으로 와 내속을 원하였다. 광무제는 於仇賁를 王으로, 滿頭를 侯로 봉하였다. 明帝 초년에는 선비의 대인들이 요동군으로 귀부하여, 잠시 無事하게 되었다. 후한이 선비로 보낸 歲給錢은 2억 7,000만을 넘었다고 한다(『後漢書』 烏桓鮮卑傳).

그 뒤 89(永元 元)년 和帝가 大將軍 竇憲을 보내 북흉노를 토벌하자, 선비가 북흉노의 故地로 옮겨 그 餘衆 10여만 락을 병합하였다. 여기부터 선비의 세력은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선비 중에는 귀부하는 자도 있었다. 永初(107-113)年間 선비의 대인 燕荔陽이 낙양으로 와서 조공하였다. 이에 安帝는 燕荔陽을 鮮卑王으로 봉하여 印綬를 주고, 烏桓校尉의 치소인 寧城(河北省 宣化縣)에서 무역을 허락하였다. 또 인질을 위해 質館을 세웠는데, 선비 읍락 120부에서 인질을 보냈다고 한다. 120(永寧 元)년 遼西의 鮮卑大人 烏倫과 其至健이 度遼將軍 鄧遵에게 공헌을 신청하였다. 安帝는

오륜을 率衆王으로, 기지건을 率衆侯에 봉하였다(『後漢書』烏桓鮮卑傳). 이들도 모두 外臣으로 된 것이다.

그 뒤 선비에 檀石槐가 나타나 諸部를 통일하였다. 166(延熹 9)년 환제는 단석괴를 鮮卑王으로 봉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였다. 이는 후한의 세력이 왕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단석괴의 사망 뒤 그 통일은 무너졌다(『後漢書』烏桓鮮卑傳). 그러나 장성의 내외에 정착한 선비족의 기반은 공고하고, 이후 拓跋氏가 화북에 北魏帝國을 건립하였다.

2. 漢과 閩越、南越의 관계

(1) 閩越과 東越

『史記』東越傳과 『漢書』閩越(粵)傳에 따르면, 秦은 지금의 福建省 방면에 閩中郡을 두었다. 秦末 내란 때 이 越族은 番陽(江西省 番陽縣)의 縣令(番君) 吳芮를 따라 討秦의 功을 세웠다. 前 202(漢 5)년 漢 高祖는 項羽를 멸하자 越王 句踐의 자손인 鄒無諸를 閩越王에 봉하고 冶(福建省 閩侯縣)에 都하도록 하였다. 前 192(惠帝 3)년 惠帝는 鄒搖를 東海王에 봉하고 東甌(浙江省 永嘉縣)에 都하도록 하였다.

그 뒤 前 138(建元 3)년 武帝는 東甌를 江淮 사이로 이주시켰다. 前 135(建元 6)년 閩越이 남월을 침공했기 때문에, 무제는 閩越를 토벌하게 되었다. 그때 왕의 弟인 餘善을 東越王으로 봉하였다. 월족의 諸王은 『史記』 『漢書』의 異姓諸侯王表에도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외신의 왕으로 대우된 듯하고, 閩中으로는 漢의 군현 지배가 침투하지 못하였다.

前 111(元鼎 6)년 무제가 남월을 토벌할 때, 여선은 兩端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東越의 武帝(生號)를 칭하고 독립했지만, 漢은 越의 장군과 列侯의 조력을 받아 翌年 여선을 주벌하였다. 그리고

饒王 居股를 東成(城)侯(10,000戶), 東越의 建成侯 敖를 開陵侯(2,000戶), 東越의 衍侯 吳陽을 卯(外)石侯(1,000戶), 東越의 將多軍을 無錫侯(1,000戶), 甌駱(?)의 左將 黃同을 下鄜侯(700戶)에 봉하였다.¹⁰⁾ 『史記』 『漢書』 공신표에도 이 사실이 실려 있어, 이들은 內臣의 列侯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東越의 餘民은 다시 江淮 지방으로 이주되었다.

『漢書』 高帝紀에 따르면, 前 202(漢 5)년 고조는 吳芮를 長沙王에 봉하고, 南海·桂林·象 3郡을 합쳐 봉했다고 한다. 이 3군은 당시 南越王國 영역에서 독립해 있었기 때문에, 이는 虛封이었다. 또 前 195(漢 12)년에도 고조는 南武侯 鄒織을 南海王으로 봉했고, 이 역시 虛封이다. 단, 고조가 계속 허봉을 실시한 이유는 秦을 계승한 漢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秦 영역에 대해 강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양자강 중류역의 異民族

그런데 『漢書』 南越傳에 있는 前 179(文帝 初元 元)년 南越國王 趙佗가 文帝에 올린 上書를 보면, 長沙王國의 民은 「절반은 蠻夷이다」고 한다. 漢 初 강남지방은 漢·蠻의 잡거 지대였다. 따라서 이 지방에 漢이 군국제도를 세웠음에도 그 통치법은 內郡과는 달랐고, 巴郡·南郡·武陵郡 등도 같은 상황이었다. 後漢代도 이 지방에는 많은 이민족이 살았고, 후한은 이들에 특수한 租賦를 과세하였다. 이민족 수장에 대해서는 종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사례는 『後漢書』 南蠻西南夷傳에 보인다.

양자강 중류역의 蠻族 중, 巴郡 閬中の 板楯蠻은 무용이 뛰어났다. 한 고조가 漢中에서 三秦으로 돌입할 때 가담하여 大功을 올렸

10) 前掲 『中國古今地名大辭典』에 따르면, 東越은 安徽省 定遠縣 東南, 開陵은 安徽省 南境, 無錫은 江蘇省 無錫縣이다. 卯石·下鄜는 불명이지만, 이도 華南에서 멀지 않은 땅이었을 것이다.

고, 巴中으로 돌아간 뒤 이 7姓은 조세를 면제받았다. 後漢代로 되어도 자주 氏·羌族 반란 진압에 종군했다고 한다. 또 閩中の 渝水 유역에는 巴渝舞라고 하는 특수한 軍舞를 가지고 漢을 섬긴 種族도 있었다(『後漢書』南蠻西南夷傳. 『續漢書』禮儀志).¹¹⁾

한편 五嶺을 넘어 華南 땅에는 漢 初에 南越王國이 성립하였다. 이 왕국의 흥망은 漢이 外民族을 통어한 수단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기 있어 조금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3) 南越王國의 흥망

『史記』『漢書』南越傳에 따르면, 秦 末에 南海郡 龍川縣의 縣令인 趙佗는 본래 河北 眞定縣 출신이며, 南海郡尉 任囂의 위촉을 받아 南越王國을 세워 독립하여 武王(生號)으로 칭했다고 한다. 『漢書』高帝紀에 따르면, 前 196(漢 11)년 고조는 陸賈를 보내서 趙佗를 타이르고 南越王으로 봉했다고 한다. 그때 詔를 보면,

「秦은 中縣의 民을 남방 3군으로 옮기고, 百越과 雜處하게 하였다. 모든 천하가 秦을 주멸하자, 南海 尉佗는 남방에 있으면서, 長으로 이를 다스렸고 매우 文理가 있어, 中縣의 사람도 이로 인해 줄지 않았다. 越人이 서로 공격하는 습속도 점점 없어졌는데, 모두 그에 힘입었다. 지금 佗를 남월왕으로 삼는다.」

라고 서술한다. 그리고 고조는 조타에 割符와 璽綬를 주었기 때문에, 조타는 稽首稱臣의 禮를 취하는 「外臣」으로 됐다고 한다.

그러나 呂后(在位 B.C. 188~180)는 남월의 籍¹²⁾을 삭제하고,

11) 俞偉超, 1963, 「“大武開兵”銅戚與巴人的“大武”」, 『考古』1963年 3期, 北京.

12) 漢의 內諸侯王·列侯의 籍에 대한 記載는, 『漢書』卷1, 高帝紀 5年 9月條

牛·馬·羊의 牝과 銅·鐵·農具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조타는 이후에 원한을 품게 되었다. 남월의 武帝(生號)를 칭하여 離叛하고, 長沙王國의 南邊을 침공하였다(『史記』南越傳. 『漢書』南越傳).

여후가 죽고, 前 180년 문제가 즉위하였다. 다시 육가를 남월에 파견하여 漢의 外臣으로 복귀시켰다. 그때 조타는 국내에 書를 내려 漢 문제를 「賢天子」로 칭양하고, 漢의 산하로 복귀할 뜻을 알렸다. 또 문제에 上書하여 漢의 恩을 감사하였다. 이 상서 중에, 漢初의 長沙王國 절반은 蠻夷이고 서쪽으로는 西甌王國이 있었는데, 그 반은 나체의 미개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文中의 西甌가 『後漢書』馬援傳에 보이는 西于라고 하면, 그 땅은 交州의 龍編縣으로 지금의 북베트남 북부 하노이 市 동쪽에 해당한다.¹³⁾

『漢書』南越傳에 따르면, 景帝(재위 B.C. 157~141) 때 趙佗는 「臣」을 칭하고 사자를 보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帝號를 칭했다고 한다.

漢 武帝 때인 前 137(建元 4)年 趙佗가 죽고 孫인 趙胡가 왕위를 이었다. 조호는 太子 趙嬰齊를 長安으로 보내 天子의 宿衛라고 했지만, 실은 인질로 들인 것이다. 趙嬰齊는 趙胡가 사망하자 귀국하여 왕위를 이었고, 그의 死後는 다시 태자 趙興이 물려받았다.

趙興의 母는 중국인이었다. 前 113(元鼎 4)년 남월은 親漢 政策으로 바뀌고, 漢 內臣의 諸侯王에 「비견되고 싶다」고 희망해왔다. 그래서 漢은 3年마다 1朝 할 것을 허락하고, 邊關을 철거하였다. 남월의 丞相 呂嘉에 銀印을, 內史·中尉·太傅의 印(銅印)을 주었다. 또 남월의 국내에서 행하던 黥刑·劓刑을 폐지하고, 漢의 刑法에 따르도록 하였다.

· 卷5, 景帝紀 3年 夏6月條 · 卷16, 高惠高后文功臣表序 · 卷34, 英布傳 등에서 보인다.

13) 杉本直治郎, 1956, 「秦漢兩代における中國南境の問題」, 『東南アジア史研究』 1, 嚴南堂.

漢化 방침은 보수파인 승상 여가 등의 반감을 얻어, 왕과 태후는 살해되었다. 여가는 隣國의 蒼梧王 趙光과 연락하고, 또 南越王國 내의 군현에 봉기를 재촉하여 漢을 배반하였다. 또 趙嬰齊의 장남 이자 越人 女性을 어머니로 하는 남월의 高昌侯 趙建德을 옹립하고 남월왕으로 하였다.

그래서 前 112(元鼎 5)년 漢軍은 桂陽·豫章·零陵 등으로 진격하였다. 또 漢에 가담한 越의 歸義侯의 원조를 얻고, 夜郎의 兵도 牂柯江으로 내려갔다. 이들이 도착하지 못한 중, 翌年, 首都 番禺(廣東)가 함락되어 南越王國은 멸망하였다. 무제는 趙建德을 衛陽侯(3,000戶)로, 蒼梧王 趙光도 隋桃侯(3,000戶)로 봉하였다.¹⁴⁾ 漢에 가담한 越의 유력자들도 각각 列侯로 하였다. 모두 공신포에 보이고 食邑을 가졌기 때문에 內臣의 列侯로 된 것이다. 남월은 건국 이래 5년, 93년 만에 멸망했다고 한다(『漢書』南越傳). 이후 華南 땅에는 중국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強國은 나오지 못하였다.

(4) 交趾 방면의 형세

무제는 남월을 儋耳·珠崖·南海·蒼梧·鬱林·合浦·交趾·九真·日南의 9郡으로 나누고, 군현제도로 통치하게 하였다. 9군은 각종 민족이 잡거하고 있어 통치하기 쉽지 않았다. 漢은 중국의 죄인 등을 이주시켜 서서히 漢化 정책을 진행하였다. 儋耳·珠崖 2군은 지금의 南海島인데, 前 82(始元 5)년 儋耳郡을 폐하고 珠崖郡에 합쳤다(『漢書』昭帝紀). 이도 다시 前 46(初元 3)년에 폐지됐는데(『漢書』元帝紀), 통치가 곤란했기 때문인 것 같다.

왕망이 권위를 떨치기 시작한 2(元始 2)년, 日南郡 남쪽의 黃支國이 平帝에 犀牛를 헌상하기도 하였다. 왕망의 찬탈이 실현되자, 交趾郡 태수 錫光은 여기에 복종하지 않았다. 『後漢書』光武帝紀에

14) 衛陽·隋桃은 알 수 없지만 食邑의 戶數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華南에 가까운 內郡일 것이다.

따르면, 29(建武 5)년 交州의 州牧 鄧讓이 7군 태수를 거느리고 광무제가 있는 곳으로 사자를 보내 봉헌했다고 한다. 이는 후한의 통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또 『後漢書』 南越西南夷傳에 따르면, 交趾郡 태수 錫光과 九眞郡 태수 任延은 土民에 농경을 가르치고, 中國流 예절을 퍼트렸으며, 학교를 세워 教化시켰다고 한다.¹⁵⁾ 36(建武 12)년 九眞郡 境외의 里(俚)蠻 추장 張游가 種人을 거느리고 內屬을 요구하였다. 광무제는 이들을 歸漢里君에 봉했는데, 이도 外臣이다.

그러나 40(建武 16)년 交趾의 女子 徵則과 妹 徵貳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九眞·日南·合浦의 蠻族이 봉기하고 65城을 빼앗았다. 徵則은 자립하여 王을 칭했고, 광무제는 伏波將軍 馬援에 명하여 이들을 토벌시켰다. 馬援은 43(建武 19)년 徵則·徵貳를 참하였다. 그리고 日南郡의 象林縣에 銅柱를 세우고, 叛徒의 수령 100여 명을 零陵으로 이주시켰다.¹⁶⁾ 이로부터 境外 蠻夷의 入貢이 이어졌다고 한다(『後漢書』 馬援傳).

131(永建 6)년에는 日南郡 境외의 葉調國王 便이 공헌하였다. 그때 順帝는 王에 金印紫綬를 증여하였다. 이도 外臣의 王으로 삼은 것이다. 葉調國에 대해서는 자바섬 說과 실론섬 說¹⁷⁾이 있다. 그 뒤 170(建寧 3)년에는 食人蠻의 烏滸人 십여만 명이 鬱林郡으로 內屬하였다. 靈帝는 여기에 7縣을 설치하고, 烏滸의 수장들에게는 冠帶를 주었다고 한다(『後漢書』 南蠻西南夷傳). 冠帶만 보이고 印綬 사여는 없다는 사실은 정식 外臣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15) 後藤均平, 1968, 「後漢書所見越南三郡反亂記事小考」, 『新潟大學人文科學研究』 33.

16) 後藤均平, 1969, 「徵姉妹の反亂」, 『中國古代史研究』 3, 中國古代史研究會, 吉川弘文館.

17) 藤田豊八, 1933, 「葉調・斯調・私訶條につきて」, 『東西交渉史の研究 - 南海篇 -』, 岡書院.

3. 漢과 西南夷의 관계

(1) 前漢時代의 西南夷

『史記』『漢書』의 西南夷傳에 따르면, 지금의 四川省 변경부터 貴州·雲南省 方面에는 각종 민족이 살고 있었다. 남방에는 盤江 상류에 있던 夜郎이 가장 크고, 그 서쪽에는 滇池 주변에 있던 滇, 그 북쪽에는 邛이 모두 취락을 이루며 농경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邛의 서쪽에는 嵩·昆明 등 유목민 취락이 있고, 嵩의 동북쪽에는 徙와 葶都이, 葶의 동북쪽에는 冉駹이, 모두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고 있었다. 蜀郡의 서쪽은 冉駹의 동북쪽에 해당하고 白馬가 있는데, 이들은 베트남 系 氏族이다.

일찍이 秦은 통일시대에 이 방면으로 폭 5尺의 길을 통하게 하고, 관리를 배치하려고 하였다. 漢 初에는 放棄되어 蜀郡의 舊境이 國境으로 되었다. 그러나 巴·蜀의 民은 이들 境外한 민족과 밀무역을 진행하였다. 葶馬·犍僮·旄牛 등을 수입하고, 철기 등을 수출해서 居利를 얻었다. 『史記』『漢書』 貨殖傳에 보이는 蜀의 卓氏·程氏 등이 製鐵로 巨富를 얻은 것이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한 무제는 남월을 토벌할 때, 番陽縣令 唐蒙을 야랑으로 보내 원조를 구하게 하였다. 그때 당몽은 夜郎侯 多同에 만나 漢으로 귀순시키고, 그 땅을 犍爲郡으로 하였다.¹⁸⁾ 또한 무제는 蜀人 司馬相如의 진군으로 邛·葶 지방도 蜀郡에 편입하고, 군현제도로 이들을 통치하였다. 그 뒤 張蹇의 獻言에 따라, 서남에서 身毒(인도)으로 통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前 122(元狩 元)년 무제의 사자 10여 명은 먼저 滇國에 이르렀다. 그때 국왕 嘗羌은 漢의 사자에게, 漢과 滇은 모두가 大國인가, 라고 물었고, 야랑후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史記』 西南夷傳. 『漢書』 西南夷傳).

18) 久村因, 1969, 「犍爲郡開置の年代について」, 『中國古代史研究』 3.

이 무렵 漢은 서남이 수장에 爵號를 주었다. 西南夷傳 중에는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文中에 상대방을 「王」이라고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夜郎侯·菴侯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漢의 제도적 칭호이며, 상대방이 스스로 그렇게 稱號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漢書』西南夷傳에 따르면, 야랑은 처음 남월에 속했지만 臣使하지는 않았다. 남월이 멸망한 뒤, 漢에만 臣屬하게 됐다고 한다. 무제는 야랑후를 王으로 승격시키고, 또 邛都에 越嶲郡을, 菴都에 沈黎郡을, 冉駹에 汶山郡을, 白馬에 武都郡을 두었다. 前 109(元封 2)년 滇王도 항복하자 그 땅을 益州郡이라 하였다. 그때 무제는 滇王에 王印을 주고, 「다시 그 民에 長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서남이 중 漢에서 王印을 받은 사례는 滇王과 夜郎王 뿐이었다.

그러나 이 지방은 이민족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前 83(始元 4)년에는 益州郡 태수가 살해당하자, 翌年 昭帝는 軍正 王平과 大鴻臚 田廣明을 보내 叛徒를 토벌시켰다. 그때 鉤町侯 亡波가 功을 올렸고 王號를 주었다(『漢書』西南夷傳·昭帝紀).

그 중 河平(前 28~前 25)年間 夜郎王 興과 鉤町王 禹·漏臥侯 兪가 서로 상대를 공격하자, 成帝는 金城司馬 陳立을 牂柯郡 태수로 임명하고 먼저 夜郎王을 참하였다. 이를 본 鉤町王과 漏臥侯는 두려워 복속하고, 西南夷의 亂은 일시 수습되었다. 9(始建國 元)년 왕망은 이 방면으로 중화 의식을 강제하였다. 鉤町王 邯의 爵을 侯로 격하할 뿐만 아니라, 또 살해하였다. 그러자 西南夷는 모두 離叛하고, 益州大尹(太守) 程隆도 살해당하고 말았다. 왕망은 天水·隴西·巴·蜀·廣漢郡의 吏民을 뽑아 토벌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越嶲郡의 蠻夷 任貴는 大尹을 살해하고 독립하여 邛穀王이라고 자칭하였다(『漢書』西南夷傳·王莽傳).

(2) 後漢時代의 西南夷

『後漢書』南蠻西南夷傳에 따르면, 任貴는 後漢 初 蜀의 公孫述에

속했다가 公孫氏가 멸망한 뒤 後漢으로 귀순했다고 한다. 光武帝는 그 왕호를 승인하고 또 越巂郡 太守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43(建武 19)년 任貴를 주벌하고, 그 家屬을 成都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51(建武 27)년 哀牢王 賢栗 등이 種人 戶 2,707, 口 17,659를 거느리고 越巂郡 태수 鄭鴻에 內屬하였다. 光武帝는 이들을 君·長이라고 하고, 69(永平 12)년에도 哀牢王 乳母 등이 邑王 77명, 戶 51,890, 口 553,711을 거느리고 內屬하였다. 明帝는 그 땅을 哀牢·博南縣으로 하였다. 益州郡 6縣을 나누어 여기에 합쳐, 새로이 永昌郡(雲南省 保山縣 東北)을 세웠다. 이들 邊郡 내외에 살고 있던 이민족에는 外臣的 요소가 있었음에 틀림없지만, 상세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 뒤 76(建初 元)년 哀牢王 類牢의 반란이 일어난 사건은 그 통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邪龍縣(雲南省 蒙化縣)의 昆明夷 鹵承 등은 漢軍과 협력해서 叛徒를 진정했기 때문에, 章帝는 이들을 破虜傍邑侯로 봉하였다(『後漢書』 南蠻西南夷傳). 후한시대 哀牢夷는 상당히 광범하게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¹⁹⁾

永昌郡은 버마의 東北境에 가까운 辟遠이다. 97(永元 9)년 境外의 掸國王 雍由調가 사자를 보내왔다. 그때 和帝는 雍由調에 金印紫綬를 주었다. 120(永寧 元)년에도 雍由調의 사자가 와, 大秦國의 幻人(奇術師) 등을 헌상했기 때문에, 安帝는 雍由調에 漢大都尉 印綬를 贈하였다(『後漢書』 南蠻西南夷傳). 따라서 동북 버마 지역도 後漢의 外臣層에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다.

葶都夷는 前漢 武帝 때 沈黎郡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이 군이 곧 前 97(天漢 4)년에 폐지되자, 蜀郡西部都尉의 管掌으로 들어갔다. 그 뒤 100(永元 12)년 蜀郡의 旄牛縣 境外에 있는 白狼 樓薄의 夷王 唐縉 등이 種人 170,000口를 거느리고 內屬하였다. 和帝는 이들

19) 藤澤義美, 1969, 『西南中國民族史の研究』 大安, 5~13쪽.

에도 金印紫綬를 주었다. 108(永初 2)년 靑衣道 夷邑의 長壽 田이 경외의 夷種 31萬口를 거느리고 內屬하자, 安帝는 畝田의 爵을 奉通邑君으로 하였다(『後漢書』南蠻西南夷傳). 모두 外臣으로 한 것이다. 西南夷 內屬 기사는 이외에도 많지만, 지금은 생략한다.

4. 漢과 西羌의 관계

(1) 前漢時代의 氏·羌族

氏·羌은 티베트 族으로 예전부터 중국의 서부와 서북부에 살고 있었다. 많은 族類로 나누어져 邑落을 만들고 半農半牧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漢과 관계가 깊어진 것은 西北의 羌族이다.

『後漢書』西羌傳에 따르면, 漢 景帝 때 研種의 留何가 種人을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이들을 狄道·安故·臨洮·氐道·羌道 등 지금의 甘肅省 중부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그 뒤 武帝가 河西 4郡을 두어 氏·羌과 匈奴의 연락이 단절됐기 때문에, 羌族의 동요가 일어났다. 따라서 前 111(元鼎 6)년 武帝는 장군 李息 등에 명하여 先零羌을 정벌하게 하였다. 또 護羌校尉에 節을 주어 통어시키고, 거주 漢人은 湟中(靑海 東南境)으로 이주하였다. 前 77(元鳳 4)년 昭帝는 范明友를 羌騎校尉로 임명하여, 羌種의 王·侯·君·長을 거느리고 益州의 난을 평정시켰다. 羌族의 반란은 그 뒤도 이어졌다. 前 61(神爵 元)년 宣帝는 後將軍 趙充國에 명하여 이들을 토벌시켰다.²⁰⁾ 翌年, 叛徒의 巨帥였던 先零羌의 歸義羌侯 楊玉 등을 잡았다. 金城屬國을 두고 護羌校尉에 감독시켰기 때문에, 羌族의 반란은 일시 평온하게 되었다(『漢書』趙充國傳). 그 결과 4(元始 4)년 王莽이 諸羌을 風論하여 靑海 지방을 현상하게 하고, 漢은 西海

20) 趙充國의 對羌政策에 대해서는, 米田賢次郎, 1968, 「前漢의 對羌戰鬪에 關する二,三の問題」, 『田村博士頌壽東洋史論叢』, 京都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郡을 두었다. 王莽 정권이 흔들리게 되자, 西海郡은 다시 羌族의 수중에 들어갔다(『漢書』 王莽傳).

(2) 後漢時代의 氏·羌族

후한 광무제는 護羌校尉를 부활하였다. 이 관리는 氏·羌族을 수탈하는 피해를 단속하고, 종족을 각지에 분산시켰다. 在地의 漢人豪族이 이를 흡사하여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 58(永平 元)년 大·小榆谷 지방을 근거로 하는 燒當羌 滇岸이 狄道の 護羌校尉에 내항하였다. 明帝는 滇岸을 歸義侯에 봉하고 漢大都尉로 임명했지만, 諸羌의 반란은 이어졌다. 102(永元 14)년 和帝는 曹鳳을 金城西部都尉로 임명하고, 屯田 34郡을 두어 방비 자급에 종사했지만, 몇 년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後漢書』 西羌傳).

당시 羌族은 西河·北地·上郡·安定의 諸郡에도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安帝가 즉위하자 109(永初 3)년 先零羌의 滇零이 北地에서 봉기하여, 「天子」를 자칭하였다. 또 上記 諸郡의 羌族을 거느리고 지금의 陝西省 東部 一帶를 寇掠하였다. 河東·河內 각지에도 침입했지만, 112(永初 6)년 滇零이 죽자 그 勢는 약해졌다. 이는 西戎 미증유의 대반란이었다. 『後漢書』 저자 范曄은 이를 비평하여, 「戎狄를 제어하는 법은 原住地에 그쳤고, 그 貢職을 가벼이 여겼다. 漢 군현 내로 이주시키고 강제적으로 지배한 것은 兩漢 모두 정책을 잘못하였다」(『後漢書』 西羌傳)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115(元初 2)년 零昌羌 號多가 다툼에서 패해 서쪽으로 달아나, 7천여 명을 거느리고 護羌校尉 龐參에 귀순하였다. 安帝는 이들에 侯의 印綬를 주었다. 117(元初 4)年 當闐羌의 榆鬼를 功에 따라 破羌侯로 봉하고, 効功種羌의 號封은 零昌을 자살시킨 功에 의해 羌王에 봉해졌다. 『續漢書』 郡國志의 金城郡 條에 破羌城이 있는데, 榆鬼가 봉해진 곳은 이 땅일지도 모르겠다. 후한은 羌族에 이간책

을 통해 相爭시키고, 我軍으로 되는 자는 王·侯로 봉하였다. 여기서 東部の 羌族은 쇠퇴했지만, 西部의 반란은 여전히 이어졌다.

122(延光 元)년 燒當羌의 麻奴는 3천여 호를 거느리고 漢陽郡(甘肅省 天水縣 부근) 태수 耿种에 항복하였다. 安帝가 이에 金印紫綬를 假授했는데, 王爵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 방면의 반란은 이어졌고, 129(永建 4)년부터 翌年에 걸쳤다. 順帝는 尙書僕射 虞詡의 의견에 따라, 湟中 방면에 屯田 12部를 두고 隴西南部都尉를 부활시켜 羌族 억압에 중사토록 하였다. 후한시대의 羌族은 150種이 넘었고, 큰 무리는 兵 10만, 작은 무리도 數千으로, 城堡를 쌓아 저항하기도 하였다(『後漢書』 西羌傳).

南部의 羌族에서는 廣漢郡 境外 白馬江의 樓頭 등이 37(建武 13)년 種人 5,000여 戶를 거느리고 郡으로 내부하였다. 광무제는 이들을 歸義君·長으로 삼았다. 89(永元 元)년에는 蜀郡 경외의 大群羌種 造頭 등이 種人 5,000餘 萬口를 거느리고 內屬하였다. 和帝는 이들을 邑君·邑長으로 하고 印綬를 주었다. 그 외에도 107(永初 元)년부터 翌年에 걸쳐, 蜀郡과 廣漢郡 경외의 羌族이 內屬하였다(『後漢書』 西羌傳).

이상 漢에서 봉작을 준 羌族의 王·侯도 漢의 外臣이거나 또는 外臣의 요소를 포함한 內臣으로 났다고 생각되지만, 상세는 판단할 수 없다. 그 중 五胡十六國時代 蜀의 成國, 河北의 前秦·後涼은 氏種이고, 後秦은 羌種이었다. 모두 內徙한 氏·羌族이 세운 國이다.

5. 漢의 西域 지배 개요

漢과 서역과의 관계는 『史記』 大宛傳과 『漢書』 『後漢書』의 西域傳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이른바 西域 36國과의 관계에 정치 관계도 복잡했기 때문에, 그 大要만을 서술한다. 漢과 서역 중 最大國인 烏孫과의 관계는 뒤에 정리하고자 한다.

한 무제 때 흉노를 토벌하여, 河西에 4郡을 두게 되자, 匈奴와 氏·羌族의 연락이 단절된 사실은 이미 서술하였다. 그 결과 西域諸國에서 漢으로 入貢하고, 질자를 보내 「外臣」으로 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무제는 使者校尉를 두어 入貢을 보냄과 동시에, 要地에 屯田을 넓혔다. 前 104(太初 元)년 李廣利에 명하여 大宛을 토벌하게 하였다. 翌年에 大宛이 항복하고 나서는 파미르 以西의 나라들도 入貢하였다. 前 60(神爵 2)년 宣帝가 鄭吉을 西域都護로 임명하여 龜茲의 烏壘城에 주둔시키고, 諸國의 도둑과 絶遠의 나라들의 조공을 관장시켰다. 이로써 漢의 서역 경영은 일단 조직적으로 되었다(『漢書』 鄭吉傳).

『漢書』 西域傳에 따르면, 전한 말 漢의 印綬를 패용한 西域人은 國王·侯 이하 關羽·역관을 합쳐서 376명에 넘었다고 한다. 모두 漢의 外臣으로 된 듯하고, 그중에는 烏孫·大宛 등도 있었다.

康居·大月氏·安息·罽賓·烏弋山離의 諸國은 당시 西域都護의 지배 아래는 아니었고, 단순하게 조공해 왔다. 外臣의 예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공하지도 않는 國이었다. 이 중 康居는 烏孫 다음의 大國이었다. 元帝·成帝 무렵 漢으로 質子를 넣어 貢職을 봉하고, 罽賓도 元帝 때 일시적으로 그 왕이 漢의 사자에 扈從되어, 漢의 인수를 받은 적이 있었다. 兩國과도 이 시기에는 漢의 外臣으로 된 것이다.

漢의 지배가 강화됐기 때문에, 西域에 漢文化의 영향도 강하였다. 北道의 龜茲國에서는 王과 夫人이 漢의 印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인은 漢의 皇女로 칭하는 「公主」를 이음하고, 의복·궁실은 물론 국왕 출입 때의 號令까지도 中國流를 채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들에도 있었음에 틀림없다(『漢書』 西域傳).

前漢末 왕망은 西域에도 사자를 보내, 漢이 준 王印을 회수해서 侯印으로 격하시켰기 때문에 諸國은 離叛하였다(『漢書』 王莽傳). 그러나 後漢으로 되면, 흉노의 제압에 시달리던 西域諸國 중에 漢

의 지배로 들어가 外臣으로 될 것을 희망하고, 또 西域都護 개설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통일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무제는 諸國의 희망에 따르기 어렵다는 뜻을 論하고 응하지 않았다(『後漢書』光武帝紀·西域傳).

明帝 시대에 후한의 서역 정책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74(永平 17)년 西域都護가 부활하여 車師後部에 두었다. 그 뒤 일시 중단했지 만, 90(永元 2)년 西域長史 班超가 大月氏(貴霜朝)의 軍을 추격 하였다. 翌年 和帝로부터 西域都護에 임명되자 西域諸國 중 質子를 보내 조공하고, 都護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 外臣으로 된 것은 50여 국이 넘었다고 한다(『後漢書』班超傳·西域傳).

『後漢書』西域傳에는 条支·安息 諸國과 海瀕 40,000리 밖은 重譯貢獻할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和帝紀에 따르면, 100(永元 12)년 겨울 11월 西域의 蒙奇·兜勒의 2國이 遣使해서 내부하자 和帝는 그 王에 金印紫綬를 주었다. 西域傳에는 遠國의 蒙奇·兜勒이 모두 와서 歸服하여 遣使貢獻했다고 한다. 內附하고 歸服하여 金印紫綬를 주었다고 한다면, 兩國도 일시적으로 後漢의 外臣層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班超가 甘英을 파견한 영향이었는데, 그 소재지는 분명하지 않다.

6. 漢과 흉노의 관계

(1) 全盛期の 匈奴와 漢

『史記』『漢書』匈奴傳에 따르면, 秦末부터 匈奴는 세력을 회복했다고 한다. 冒頓單于 때 東胡를 토벌하고 月氏를 축출했으며, 東西로 지배하여 남쪽으로는 長城線을 넘어 오르도스 지방을 점령하였다. 漢 高祖는 前 200(漢 7)년 平城(山西省 大同縣)에 포위당했고, 이후 화친 정책으로 바꾸어, 매년 繒·絮 그 외 물자를 증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漢의 저자세에 기세 탄 흉노는 漢을 업신여겼다. 和議가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北邊 침략을 그치지 않았다. 前 176(文帝 初元 4)년 冒頓單于의 子 老上單于에 보낸 文帝의 書는 一尺一寸의 牘을 사용하였다. 내용은

「皇帝는 匈奴大單于에 敬問하니, 恙無한가」

이다. 여기에 답한 單于의 書는 一尺二寸의 牘을 사용했고, 封印도 文帝의 것보다 컸다. 그 내용은,

「天地가 생긴 곳, 日月이 두어진 곳의 匈奴大單于是 漢 皇帝에게 敬問하니, 恙無한가」

라고 하였다. 당시 漢과 匈奴의 力關係에서 흉노가 우세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관계는 武帝 初年까지 이어졌다. 화친조약의 내용은 兩國이 서로 相侵하지 않을 것, 關市를 행할 것, 漢에서 歲幣를 贈할 것, 漢室의 女子를 單于에게 시집보낼 것, 등이었다. 漢과 匈奴와는 「昆弟」(兄弟)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漢書』匈奴傳).

(2) 匈奴 諸王의 歸順

이 관계를 파기하고, 漢을 우위로 세운 것은 武帝였다. 武帝는 즉위하자 곧 張蹇을 大月氏로 보내, 匈奴를 東西에서 견제하고자 하였다. 張蹇이 귀국하지 못한 중 匈奴 토벌이 시작되었다. 前 129(元光 6)년부터 翫翫년에 걸쳐, 將軍 衛靑 등이 오르도스 지방을 회복하고, 朔方·五原의 2郡을 두었으며, 長城을 수축하여 수비를 굳혔다. 이 무렵 軍臣單于의 太子 於單이 漢으로 망명했는데, 武帝는 이들을 涉安侯에 봉하였다. 그 뒤 前 121(元狩 2)년 河西 地方

의 渾邪王이 40,000여 명을 거느리고 漢으로 귀항하자, 隴陰侯(10,000戶)에 봉하였다. 河西에 武威·酒泉의 2郡을 두고, 그 뒤 張掖·敦煌의 2郡을 分設하여 河西 4郡이 성립되었다. 당시 驃騎將軍 霍去病은 匈奴를 추격하여 居延에 이르렀고, 翌年, 衛青·霍去病 등은 匈奴를 쫓아 外몽골까지 추격하였다(『漢書』 匈奴傳·衛青傳). 漢은 신설 諸郡에 漢人을 이주시키고, 관개시설을 만들어 농지를 넓혔다. 田官을 두어 방비의 자금을 꺾하는 동시에, 河西 4郡을 확보하여 동서교통의 원활을 도모하였다. 서역 각국이 入貢하여, 漢의 外臣으로 된 것은 이로부터였다.

匈奴와 漢의 관계는 그 뒤도 和戰이 반복되었다. 武帝는 西域에서 돌아온 張蹇의 진언에 따라, 흉노의 西北에 있던 유목민의 대국 烏孫으로 張蹇을 보내었다. 이들과 제휴해서 흉노를 압박하자, 흉노는 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史記』 大宛傳 『漢書』 西域傳). 前 60(神爵 2)년 匈奴의 日逐王 先賢揮이 漢으로 귀항하였다. 그때 宣帝는 이들을 歸德侯(2,250戶)에 봉하였다.

그러한 중 匈奴의 분열이 일어났다. 5單于가 분립했는데, 그 한 명인 呼韓邪單于의 左大將 烏厲屈과 그의 父 呼遼累烏厲溫敦이 무리 수만 명을 거느리고 귀항하였다. 宣帝는 前者를 新城侯로, 後者를 義陽侯(1,500戶)로 봉하였다(『漢書』 匈奴傳). 이상의 匈奴 諸王이 열후로 봉해진 것은, 新城侯 烏厲屈 외 모두 功臣表에 보이지 않는다. 그가 봉해진 땅은 알기 어렵지만, 食邑을 주고 또 功臣表에 실려 있기 때문에 모두 內臣으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수많은 例가 있었듯이, 外民族 중 王爵에 해당하는 지위의 인물이 漢의 內臣으로 될 때는 一級 격하여 「列侯」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漢帝國의 구조가 중화사상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印綬에 대해서도 이를 말할 수 있다. 漢은 자주 外臣의 王에 金印紫綬를 贈하였다. 국내에서 金印紫綬를 주는 작위는 諸侯王보다 一級 아래의 列侯였다.

(3) 南匈奴의 귀순

흉노의 5單于는 서로 다툰 결과, 呼韓邪單于와 郅支單于가 分領하게 되었다. 南部에 있던 呼韓邪單于는 郅支單于에 대항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西域諸國도 漢의 外臣으로 되고, 뒤에 서술하듯이 烏孫도 이 무렵 마찬가지였다. 이에 前 52(甘露 2)년 呼韓邪單于는 漢으로 귀순을 청하였다. 翌年 正月에 單于가 직접 漢으로 入朝하여, 그의 子 右賢王 銖婁渠堂을 宣帝의 質子(入朝)로 보냈다. 이때 漢은 呼韓邪單于에 대해 客禮를 베풀었다. 朝會의 次席은 內臣諸侯王의 上席으로 하고, 冠帶·衣裳·黃金璽綬 그 외 錦繡·雜帛 8,000匹, 絮6,000斤을 주었으며, 이후 五原郡界의 光祿塞 아래에 살도록 하였다(『漢書』 宣帝紀·匈奴傳).

呼韓邪單于에 귀순 의지가 있음을 안 郅支單于도 漢으로 화친을 신청하고, 侍子를 두었다. 그러나 漢의 호의를 얻지 못하자 西北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烏孫을 공격하고 烏揭를 항복시켰으며, 북쪽의 丁零, 서쪽의 堅昆을 토벌한 뒤, 堅昆에 거주지를 정하였다. 元帝(在位 B.C. 49~B.C. 32) 때, 마침내 康居를 의지하여 그 땅으로 가, 견고한 성곽을 축조하고 근거하였다. 그러나 前 36(建昭 3)년 西域都護 甘延壽와 副將 陳湯은 독단으로 康居로 원정하고, 郅支單于를 참하여 머리를 장안으로 보냈다(『漢書』 匈奴傳·甘延壽傳).

이로부터 漢의 북변은 잠시 安泰하였다. 元帝는 王昭君을 呼韓邪單于에 시집보내고, 單于는 漢室의 「婿」를 자칭하게 되었다. 이것이 前 33(竟寧 元)년의 일이다(『漢書』 匈奴傳).

이 무렵 呼韓邪單于에 속해 있던 左伊秩訾王이 漢으로 내항한 사건이 있었다. 元帝는 그를 列侯보다 1급 아래의 關內侯로 봉하고 內臣으로 삼았다. 그에게 준 인수는 匈奴의 왕에게 준 인수의 규격에 의거하였다. 이는 特例였다. 前 31(建始 2)년 呼韓邪單于가 사망하고, 그의 子 雕陶莫婁가 즉위하여 復株鞮若鞮單于를 칭하였다. 이로부터 匈奴의 單于號에 「若鞮」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이 단어는

漢語의 「孝」에 해당하고, 漢 황제의 諡號에 「孝」字를 넣는 것에 비견된다. 다만 匈奴의 경우는 生號와 諡號의 구별은 없었다(『漢書』匈奴傳).

新帝國이 성립한 9(始建國 元)년, 王莽의 중화 의식은 흉노에도 이르렀다. 烏珠留若鞮單于에 대해 客禮 特遇를 낮추어, 1급 아래의 一般 外臣 수준에 가까운 「新匈奴單于章」로 새겨진 인수를 贈한 것이다. 이 처치는 흉노의 반감을 샀고, 離叛色이 짙어졌다. 왕망이 15명의 單于를 세워 分열책을 취하고 單于의 侍子를 長安 시장에서 참수하자, 흉노는 모두 이반하고 말았다. 왕망은 征討軍을 출발시키고 匈奴單于를 「降奴服于」라는 호칭으로 바꾸었으나, 王莽의 방침은 비참하게 패퇴하였다(『漢書』王莽傳).

(4) 후한과 흉노

후한 초기의 漢과 匈奴의 관계는 隣對(敵) 關係로 바뀌었다. 30(建武 6)년 광무제는 귀화한 匈奴人 歸德侯 劉颯을 흉노로 보냈지만, 單于의 태도는 오만하고 北邊 침입도 그치지 않았다. 그중 44(建武 20)년부터는 서북 일대에도 침입하였다. 48(建武 24)년 흉노의 日逐王 比가 南邊 8部로 밀려 독립하고, 다시 呼韓邪單于라고 칭하였다. 翌年 후한으로 귀순해서 侍子를 보내었다. 흉노는 다시 남북으로 분열하였다. 이때 광무제는 南單于에 冠帶·衣裳·黃金璽綬를 주고, 다양한 儀禮品과 함께 繒布 10,000匹·絮 10,000斤을 주었다. 또 河東에서 米 25,000斛, 牛·羊 36,000頭를 보내게 했기 때문에, 후한과 흉노와의 관계는 회복하였다. 그리고 五原郡의 西部塞를 떨어진 80리에 單于庭을 세우게 하였다. 單于를 西河에 살게 하고, 配下의 諸部王을 장성 일대의 요지에 주둔시켰다(『後漢書』南匈奴傳).

이를 안 北單于는 다시 화친을 요구하였다. 후한은 北單于에는 璽綬 등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賜物로 羈縻하는 것에 그쳤다. 89

(永元 元)년 和帝는 將軍 竇憲에 명하여 北匈奴로 원정시켰다. 두 헌은 북흉노의 龍庭을 불태웠으며 燕然山에 功을 기렸다. 首虜 20여 만을 얻었고, 翌年 다시 추격을 가하자, 北匈奴는 멀리 烏孫 지방으로 遁走하였다(『後漢書』 南匈奴傳·竇憲傳).

후한으로 항복한 南匈奴는 황제로부터 두터운 보호를 받고, 차츰 寒火의 度를 깊게 하였다. 『後漢書』 南匈奴傳에 따르면, 後漢時代의 南單于는 天神을 제사할 때, 漢 황제도 配祀했다고 한다. 이는 『漢書』 匈奴傳에 보이는, 呼韓邪單于 이후 漢과 匈奴는 「습하여 一家를 이루었다」(呼韓邪單于와 元帝의 使者와의 盟約의 辭)고 하는 관계의 결과일 것이다. 장성 일대에 정착한 흉노 민족 중, 五胡十六國時代에 漢·前趙·後趙 등 國이 나왔다.

二. 漢帝國의 구조

1. 漢의 外臣層

(1) 漢의 外臣王國과 內臣諸侯王

지금까지 나는 外臣·內臣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내가 말하는 의미에 「外臣」이라는 단어는 『史記』 『漢書』에 散見하고, 南越傳·朝鮮傳, 『史記』 大宛傳에도 보인다. 또 「內臣」이라는 단어는 『史記』 司馬相如傳·太史公自序, 『漢書』 王莽傳 등에 보인다. 이 구별은 漢帝國의 구조가 중화사상으로 관철되어 있고, 또 外보다도 內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적인 外臣과 특수한 外臣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外臣의 일반적 성질은 漢과 南越王國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史記』 『漢書』 南越傳에 따르면, 南越은 처음에는 독립국이였다가 漢의 外臣으로 되었다. 게다가 內臣諸侯王國에 비견했고, 마침내 漢

망당한 뒤 內臣의 列侯로 되었다. 즉 그 땅이 漢의 郡縣制로 됐기 때문이다.

前 196(漢 11)년 高祖가 陸賈를 보내 南越王 趙佗를 타일러 「外臣」의 待遇를 주고, 稽首稱臣의 禮를 취했던 것은 이미 서술하였다. 『漢書』 高帝紀에 따르면, 이때 符를 나누고 사자 교환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符란 이른바 「封爵之誓」로, 鐵券²¹⁾에 丹書하고 割符하여, 한쪽은 漢의 宗묘에 보관하고, 다른 한쪽은 南越에 보관한 것이다. 이 鐵券은 漢이 內臣諸侯王과 列侯를 봉할 때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外臣의 王도 그 例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呂后時代에 漢에서 이탈한 南越은 文帝의 招諭에 의해 外臣으로 복귀하였다. 文帝의 書에서는 「皇帝는 南越王에 謹問한다. 恙無한가」라고 하고, 文中에는 「致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趙佗의 이름은 쓰지 않고, 단순히 「王」이라고 부르는데 지나지 않았다. 이는 『史記』 匈奴傳에 보이는, 隣對國 時代의 漢과 匈奴의 국서 형식에 상통하고, 對等國의 禮이다. 이때 趙佗는 文帝의 意에 연하는 旨를 國中에 고하였다. 이 書에 文帝를 「漢 皇帝는 賢天子」라고 적고 있다. 趙佗 자신이 天子의 지위를 떠나 漢의 外臣으로 된 결의를 알리는 것에 틀림없다. 또 이때 趙佗가 文帝에 보낸 上書에서는,

「蠻夷의 大長 老夫 臣 佗는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 절하며 황제 폐하께 上書합니다. 老夫는 옛 越의 관리로, 高皇帝께서 臣 佗에게 璽를 幸賜하셨습니다. 이로써 南越王으로 삼으시고, 外臣으로 하여 때마다 貢職을 들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쓰기 시작한 것이다(『漢書』 南越傳). 그리고 趙佗가 外臣으

21) 栗原朋信, 1969, 「『封爵之誓』についての小研究」, 『秦漢史の研究』, 吉川弘文館.

로 복귀한 사실은 「頓首하여 明詔를 받들고, 오랫동안 藩臣으로 되어, 貢職을 받들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文帝의 書를 「詔」로 받은 점, 趙佗의 上書에 「臣佗」「昧死再拜」「皇帝陛下」「上書」「貢職」이라는 점은, 모두 신하가 황제에 대한 禮이다. 外臣의 王도 여기에 의거한 것을 알 수 있다. 外臣으로 복귀하고부터는 稽首의 禮로 바뀐 것이다.

趙佗의 사후는 그의 孫 趙胡가 계승하였다. 趙胡 때 隣國인 閩越이 南越로 침입하였다. 그때 趙胡는 上書하여 武帝에 원조를 구하였다. 이 상서 중에도 武帝가 「天子」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南越傳의 記載에는 漢의 군주는 항상 「天子」라고 쓰고 있다. 이는 外臣에 대해 漢의 군주는 天子임을 드러내고, 또 外臣에 대해 漢 君主의 書는 「詔」라고 하였다. 이 점은 뒤에 서술하듯이, 흉노의 呼韓邪單于가 客禮로 우대되고부터는 양자 관계에서 漢의 군주는 天子로 되고, 그 書는 詔로 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점을 알 수 있다면, 外臣王國과 內臣諸侯王國의 차이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南越王 趙興이 外臣이면서도 內臣諸侯王으로 「비견되고 싶다」고 희망할 때, 허가된 경위가 참고로 된다.

『漢書』 南越傳에 따르면, 趙興의 희망을 받은 武帝는 三歲마다一朝하여, 邊關을 제거하였다. 內臣諸侯王에도 입조의 의무가 있으며, 王 자신이 입조하지 않을 때는 사자를 보내는 것이었다. 三歲一朝는 南越 땅이 멀기 때문이었다. 『漢書』 匈奴傳에 따르면, 武帝 때 匈奴의 伊稚斜單于가 화친을 신청한 데 대해, 大臣들은 이를 「外臣」으로 하고 국경에서 朝請시키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外臣도 원칙으로는 春(朝)秋(請)로 遣使해야 하였다. 단 지리적인 상황과 친소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겼음에 지나지 않는다.²²⁾ 국경의 關이 폐지됐다고 하는 사실은 外臣과 境을 접하고 있는 경우는 關所가 있던 것이다. 또 南越의 丞相 呂嘉에 銀印을, 內

史·中尉·大夫에 印(아마도 銅印)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武帝 시대 內臣諸侯王의 相이 漢의 銀印을 가지고 있음에 준하는 것이다.

다만 漢에서는 景帝 때 吳楚七國의 亂 뒤에 諸侯王國 승상은 「相」으로 바뀌었다. 外臣 南越에 「丞相」이었다면, 外臣王國의 官制는 漢의 제도와는 관계없이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南越王國 내에 행해졌던 黥刑·劓刑을 폐지하고, 漢의 형법에 따랐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外臣王國 내의 형법은 漢과는 다른 형법에 따랐던 증거이다. 예를 들면, 外臣王國은 漢과 관계없이 독자적 관제·형법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南越 땅은 본래 秦이 군현제도를 세우고 있었다. 이를 답습한 趙佗는 군현제도에 따랐으나, 漢 帝國이 성립하여 국내에 군국제가 행해졌기 때문인지, 南越王國 내에도 列侯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漢의 外臣으로 되고부터는 漢의 爵命을 받은 「歸義」의 列侯도 혼재하게 되었다. 단 주의하고 싶은 점은 歸義侯 외에, 예를 들면 越의 高昌侯 趙建德과 같이 南越王 자신이 봉했을 터인 列侯가 있었다는 것이다(『漢書』南越傳·功臣表). 이는 漢 內臣諸侯王國의 경우와는 현저히 다르다.

『漢書』淮南厲王長傳을 보면, 厲王 劉長の 僭位가 비난받고 있다. 즉 內臣諸侯王은 漢의 법령을 국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王國 내의 승상 임명권과 列侯·關內侯 이하 이른바 官民爵의 賜與權은 황제에 있었으며,²³⁾ 王에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왕국의 관제는 漢이 규정하고 있었고, 王은 丞相(과 太傅)을 제외한 僚吏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다.²⁴⁾ 이는 漢初의 文帝

22) 漢의 諸侯王·列侯의 朝覲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알 수 없다. 栗原朋信, 前掲『秦漢史の研究』257쪽 注(2) 참조.

23) 漢의 民爵과 皇帝의 관제에 대해서는 西嶋定生, 1961, 『中國古代帝國の形成と構造』東京大學出版會, 460~474쪽.

24) 鎌田重雄, 1962, 「漢の郡國制度 -王國の官制-」, 『秦漢政治制度の研究』,

時代에 둔 것이었다. 다음인 景帝 때 吳楚七國의 亂이 평정되고부터 왕국의 승상은 「相」이라고 하고, 王의 권한도 현저히 축소되었다. 文帝時代에 있어, 이미 왕국의 관제와 신분제도 및 형법이 漢의 법칙에 따랐던 것을 주의하고자 한다. 또 內臣의 列侯는 漢初부터 榮典을 享受할 뿐인 것으로, 漢의 禮·法을 받들어야 할 分子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外臣王國은 漢의 爵命을 받은 군주들이 漢의 禮·法에 따를 뿐이며, 국내의 禮·法은 독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황제의 德化가 약하였다.

『史記』 『漢書』의 諸侯王表와 功臣表에 따르면, 南越王·閩越王·東越王·匈奴單于를 시작으로 해서, 주변 「歸義」의 王·侯와 「率衆」의 王·侯, 또 「漢」「親漢」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王·侯는 表 중에 발견되지 않는다. 「歸德」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匈奴에서 항복해 온 先賢擇 한 명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食邑이 주어졌다. 이미 서술한 대로 內臣의 列侯에 틀림없다. 食邑制는 漢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史記』 『漢書』의 表는 內臣을 대상으로 하고, 外臣은 이 表 중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外臣이 內臣으로 편입된 경우는 원칙으로 표에 收載되어 있다. 朝鮮이 멸한 중, 衛右渠의 子 衛長은 幾侯에 봉해졌으며, 功臣表에 실려있다. 다만 여기에는 食邑의 기재는 없지만, 그것은 누락됨에 지나지 않는다. 幾城은 內郡에 있었기 때문에, 內臣으로 났다고 해석된다. 또 南越王 趙興의 형인 南越의 高昌侯 趙建德도, 術陽侯에 봉해져 邑을 食한 것이 功臣表에 보인다. 내신으로 된 것이다. 功臣表에는 그 외 많은 예가 있다. 功臣表에 실려야 하는데, 누락된 약간의 예도 있으나 생략한다.

또 「歸義」「率衆」「歸德」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王·侯·君·長에는 곧 外臣으로 단정할 수도 있고, 外臣的 요소를 포함하면서 漢

의 군현 내에 살고 있던 경우도 있다. 東北의 烏桓·鮮卑, 西南夷, 氐·羌에 대해서도 그 예는 많지만, 사료가 간략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단 漢의 군현제도 내에 있으면서 외신적 요소를 가진 명백한 예로 다음에 들 滇王이 있다.

『史記』『漢書』西南夷傳에 따르면, 武帝 때 西南夷의 滇王이 귀항했고, 漢은 그 당에 益州郡을 두었다고 한다. 滇王에 대해서는 「다시 그 民에 長으로 하였다. 그리고 王印을 주었는데, 이 印이라고 생각되는 金印이 출토되었다.²⁵⁾ 이는 蛇紐로, 文은 「滇王之印」이다. 內臣의 王이라면 金璽로, 紐는 橐駝, 文은 「滇王之璽」로 해야 하고, 外臣의 왕이라면 龜紐²⁶⁾를 붙이고, 文은 「漢滇王之章」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도 滇王의 성격이 內·外를 절충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漢은 蛇紐의 印을 만들고 文도 「滇王之印」이라는 중간적인 印을 고안했을 것이다.²⁷⁾ 이러한 성질의 인장은 이후에도 출토될 것이 틀림없다.

(2) 南越王國의 특수성

그럼 일반 外臣과, 客禮로 우대된 匈奴單于의 중간에 해당하는 分子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다면, 역시 존재하였다. 그 예는 內臣諸侯王國에 「비견되기」까지의 外臣 南越王國이었다. 南越是 처음에 外臣으로 되었다. 『漢書』高帝紀에 따르면, 趙佗는 「王璽」를 받았다고 한다. 漢의 인장 제도에는 金璽를 받는 경우는 內臣의 諸侯王이고, 外臣의 王은 「漢□□王章」이라고 새겨진 金印인 점은 右에서 서술한 대로이다. 「璽」字를 붙인 것은 「印」「章」보다도 上位

25) 雲南省博物館, 1959, 『雲南省晉寧石寨山古墓群發掘報告』, 文物出版社, 北京.

26) 『後漢書』卷78, 西域傳의 論에서 저자 范曄은 「先馴則賞, 籛金而賜龜綬」이라고 했는데, 이 「龜綬」는 龜紐·紫綬의 印이다. 栗原, 前掲書, 205쪽.

27) 栗原, 前掲書, 220~228쪽.

이고, 客禮를 받은 흉노의 呼韓邪單于가 받은 것도 「匈奴單于璽」인 점은 匈奴傳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러면 內臣의 諸侯王은 위에 「漢」字를 쓰지 않고 「□□王璽」라는 文의 印을 받았기 때문에, 內臣의 王과 外臣의 王은 여기서 一級의 차이가 있고, 外臣의 王은 內臣의 列侯印 규격에 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漢帝國의 구조가 중화사상으로 일관됐다고 하는 추정이 印章 제도에서도 말할 수 있다.

이상을 알 수 있다면, 趙佗가 外臣 南越王으로 되면서 그 印이 「王璽」였다고 하는 사실은 일반 외신보다도 약간 높은 지위로 승인됐음을 뒷받침한다. 이는 南越이 大國으로, 趙佗의 上書에서 말하는 「東西南北數千萬里, 帶甲百萬有餘」(『漢書』 南越傳)라는 과시와 부합한다. 漢은 南越의 국력을 평가하여 특례의 「璽」를 주었고, 『漢書』 伍被傳에 보이는 伍被라는 말 중에 「南越賓服」이라고 한 점도 이를 가리킨다.

2. 漢과 隣對國의 관계

(1) 隣對國 시대의 흉노

이미 서술했듯이 漢 文帝 時代에는 漢과 匈奴와의 관계는 아직 隣對(敵) 사이였다. 文帝에서 老上單于로 보낸 書에는 「皇帝는 匈奴大單于에 敬問하니, 恙無한가」라고 하고, 老上單于에서 보내온 書에는 「天地가 생긴 곳, 日月이 두어진 곳의 匈奴大單于는 漢 皇帝에게 敬問하니, 恙無한가」라고 하였다. 이 文面에 의하면 漢初의 匈奴單于는 「天地가 생긴 곳」 즉 「天子」로서 漢에 대하고 있다. 漢의 군주는 흉노에 대해 「皇帝」이지만 「天子」는 아니었다. 『史記』 『漢書』 匈奴傳을 봐도, 文帝·景帝 무렵까지 對흉노 관계의 기재에, 황제는 「皇帝」라고 쓰여 있을 뿐, 「天子」로서 匈奴에 상대하는 서술 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漢 측에는 匈奴單于를 「天子」로는 승

인하지 않고, 隣對國의 군주로 인정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武帝時代로 되어, 衛青·霍去病·李廣 등이 활약하였다. 匈奴를 漠北으로 구축하고, 「莫南에 王庭이 없는」 상황으로 되자, 『史記』도 『漢書』도 필법이 일변하였다. 漢 武帝는 「天子」로 기록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필법이 변화할 무렵부터, 單于는 화친을 요구하고, 漢 조정에서는 匈奴單于를 「外臣」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강경 의견도 보인다. 단 이 의견은 아직 실현하지 않았다.

(2) 「天子」號를 둘러싼 문제

이러한 경과를 보면 漢과 흉노의 力關係에 漢이 高姿勢로 바뀔 때, 『史記』 『漢書』는 武帝를 「天子」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 때는 아직 객관적으로 흉노 쪽에서 漢의 군주를 「天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漢書』 匈奴傳에는 前 101(太初 4)年 且鞮侯單于의 이야기를 실는 중 武帝를 「天子」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史家의 수사가 아니라면, 이 무렵부터 흉노 측에서도 漢 武帝를 「天子」로 인정했을지도 모른다. 前 89(征和 4)년 狐鹿姑單于가 漢으로 화친을 구해 올 때의 書에는 「南으로 大漢이 있고, 北으로 強胡가 있다. 胡는 天의 驕子이다」(『漢書』 匈奴傳) 라고 보인다. 匈奴는 漢에 대해 아직 자신을 「天子」라고 과시하고 있었다.

이것이 漢 宣帝 甘露(前 53~前 50)年間に 呼韓邪單于가 漢으로 귀순해 稽首稱臣不名의 禮를 취하고부터는 달라진다. 匈奴에서 보내온 국서 중, 漢의 군주를 가리켜 「天子」라고 쓰게 되고, 單于 자신을 漢에 대해 「天子」라고 기록하지 않게 되었다. 또 漢 측에서도 國書 중에 황제 자신을 「天子」로 기록하여 보내게 되었다. 그 뒤 지금까지는 상호 국서를 「書」「遺書」「奉書」 등으로 썼다. 이후는 漢 군주의 書는 「詔」로 되고, 單于에서 보내온 書는 「上書」로 된다. 여기서는 前代와 모두 차이 나는 新例가 성립하였다. 이는 前漢 末까지 이어진다.

後漢時代의 漢과 匈奴의 관계는 前漢時代의 경과를 반복한다. 이는 이미 서술했듯이, 30(建武 6)년 光武帝가 劉颯을 흉노로 보낼 때, 흉노는 오만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隣對의 입장에서 바뀐 것을 말한다. 그러나 흉노의 日逐王 比가 다시 呼韓邪單于를 號하여 귀순하고부터는, 前漢 宣帝 甘露 2(前 52)年 이후의 예로 바뀌었다. 『後漢書』 南匈奴傳를 봐도, 여기서부터는 후한의 군주에서 보내온 책은 「詔」라고 하고, 單于의 책은 「上書」로 되어 있다. 다만 後漢時代에 흉노에서 보내온 上書 중에, 後漢 군주를 「天子」로 기록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史料가 부족하여 빠지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귀순하고부터 南匈奴 單于의 上書에는 후한 군주를 「天子」라고 쓴 것은, 그 이후 南匈奴傳의 서술법이 후한의 군주를 「天子」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3) 客禮臣으로서의 匈奴單于

그럼 漢에 귀순하여 客禮를 받은 匈奴單于와 漢의 관계는 추가로 어떠한 점이 지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漢書』 宣帝紀·匈奴傳·蕭望之傳을 보면, 漢 宣帝가 呼韓邪單于에 준 待遇가 있다. 南匈奴는 漢의 北藩으로 되었다. 單于是 황제에 대해 稽首의 禮를 취하고, 贊謁할 때는 「臣」이라고 칭하지 않으면 안됐지만, 「不名」 즉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리고 漢은 「客禮」로 우대했기 때문에, 이는 「客臣」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客臣으로 된 匈奴單于是 이로부터 漢에 「臣」字를 넣어 上書を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漢書』 匈奴傳에 따르면, 元帝 때 呼韓邪單于와 漢의 使者 韓昌·張孟이 맺은 맹약 중에는 「漢은 匈奴와 합하여 一家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單于是 漢家の 일원이 된 것이며, 單于의 上書에서도, 漢 황제의 詔에서도, 「忠」「孝」의 자가 기입되었다. 이 관계는 후한에서도 보인다. 『後漢書』 南匈奴傳의 論에서 저자 范曄이

「日逐이 달려와 呼韓의 우호를 닦고, 그리하여 北狄의 충
돌을 막으며, 藩으로서 받들고 臣을 칭하면서, 영원히 外
斥으로 될 것을 청하였다. 天子는 策을 總覽하고, 화합하여 이
를 받아들였다.」

라고 한 것은, 그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客臣 匈奴單于에 대해 漢의 군주는 「天子」로 되었다. 漢의 인장 제도에 의하면, 황제가 소지하고 있던 六塞 중, 匈奴單于와 외국의 왕에 「賜한」 書에는 「天子之璽」라고 새겨진 玉璽를 副署하게 되었다.²⁸⁾ 이는 客臣으로 된 뒤 匈奴單于에 준 詔書인 것이다.

客臣의 禮를 허락하지 않았던 北匈奴에도 璽書의 보답은 행했지만, 그 경우에 漢의 황제는 「天子」라는 단어를 새긴 璽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後漢書』 竇憲傳에 따르면, 竇憲에 추격당한 北匈奴가 漢 使者의 진언에 따라 일시적으로 呼韓邪單于의 故事에 비견해서 漢의 「臣」이라고 칭하고, 「稽首」의 禮를 할 때 「詔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 이외는 後漢과 北匈奴의 사이에, 화친 관계를 인정되는 경우는 있어도, 상하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前後 兩漢 모두, 北匈奴에는 隣對國의 관계를 원칙으로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南匈奴의 單于是 「客臣」으로 됐지만, 이는 漢 帝國의 구조에서 말하면, 「外客臣」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漢書』 王莽傳에 따르면, 왕망이 즉위하여 新 제국을 시작할 때, 漢의 마지막 군주 孺子 嬰을 定安侯로 봉하고 新室의 「賓臣」으로 했다고 한다. 賓과 客은 성질이 통하고, 孺子 嬰의 경우는 「內賓(客)臣」이었기 때문이다. 孺子 嬰은 定安侯로 봉해지고, 漢의 禮制를 지키는 것을 허락받아,

28) 『大唐六典』卷8, 符寶郎의 注에 인용된 漢儀에, 「以皇帝行璽爲凡, 雜以皇帝之璽, 賜諸侯王書, 以皇帝信璽, 發兵, 其徵大臣, 以天子行璽, 外國事, 以天子之璽, 鬼神事, 以天子信璽, 皆以武都紫泥, (中略)有事及發外國兵, 用天子信璽, 封拜外國及徵召, 用天子行璽, 賜匈奴單于·外國王書, 用天子之璽」라고 한다.

新室의 禮에서 독립하여 존재하였다. 그러나 형법 등, 법적인 점에서는 독립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 이에 반해 客臣으로 된 匈奴單于是 漢과의 관계는 漢의 禮·法을 받들지만, 국내에서는 흉노 독자의 禮·法을 세웠다. 그래서 「外客臣」과 「內賓(客)臣」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外客臣」으로서의 匈奴單于是 單于라고 하는 고유의 君主號를 칭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漢書』王莽傳에 따르면, 宣帝가 준 印에도 「匈奴單于塞」라고 새겼다고 한다. 이 경우 印文 상에 「漢」字를 쓰지 않았는데, 일반 외신과 서로 다른 「外客臣」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왕망이 이 印을 새삼 격하하여 준 印이 「新匈奴單于章」인 점을 봐도, 宣帝가 單于에 대해 주고 있던 대우의 높이를 알 수 있다. 印文 上에 「漢」「新」 등 중국왕조의 이름을 쓰고, 아래에 「印」「章」 등의 문자를 새긴 것은, 일반 외신에 대해서 준 印이기 때문이다.²⁹⁾

匈奴와 漢의 관계를 이상과 같은 각도에서 분석할 때, 흥미를 자아내는 것은 漢과 烏孫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漢은 烏孫에 대해서도 匈奴單于의 경우와 동등하게, 烏孫의 王號였던 「昆莫(昆彌)」라고 하는 칭호를 공인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烏孫 昆莫의 지위

『史記』大宛傳과 『漢書』西域傳에 따르면, 漢 武帝가 張蹇을 烏孫으로 파견할 때, 烏孫의 왕인 「昆莫」은 隣對國 시대의 匈奴單于처럼, 漢의 사자 張蹇에 「拜하지 않고」 武帝의 賜物을 받으려 하였다. 張蹇은 새삼 「拜하게 시켰」지만, 다른 禮는 선우의 禮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隣對國 시대의 匈奴單于是 漢의 사자를 拜하지 않고, 外客臣으로 되고부터 稽首하고 있었던 것이다. 烏孫의 昆莫이 장건에 拜한 것은 賜物을 받을 때뿐이며, 그 외는 單

29) 栗原朋信, 前掲『秦漢史の研究』201~206쪽.

于의 禮와 같았다고 한다면, 隣對國 시대의 匈奴單于와 外客臣 匈奴單于의 중간 지위로, 漢使 張蹇에 대한 셈이다.

『漢書』西域傳 烏孫 條에 따르면, 武帝는 일찍이 공주를 昆莫에 시집보냈는데(烏孫公主), 昆莫은 이를 右夫人이라고 하고, 흉노에서 맞은 여자를 左夫人이라고 하였다. 漢과 흉노의 사이는 여기서 昆弟(兄弟) 관계로 났다고 한다. 前漢 初期의 匈奴單于도 漢에서 보낸 女를 취해 昆弟의 관계로 났기 때문에, 흉노와 오손이 漢에 대한 관계는 그 점에서는 同例였다.

그러나 昆莫이 張蹇을 「拜한」 것이 隣對國 시대의 匈奴單于와는 달랐을 뿐만 아니라, 『史記』도 『漢書』도, 烏孫과 漢의 관계를 서술할 때는 漢의 군주를 「天子」라고 기록하고, 그 뒤 烏孫에서 宣帝에 보낸 「上書」에도, 宣帝가 「天子」로 쓰여 있다. 또 西域傳에 따르면, 宣帝 말년(前 53 [甘露 元] 年일까) 漢은 烏孫의 大昆莫·小昆莫을 세운 뒤, 兩者에 印綬를 주었다고 하는 明文은 없었다. 그 뒤 元帝 初年, 西域都護 韓宜의 上奏에 의해, 烏孫의 大吏·大祿·大監에게 「金印紫綬」를 주어 昆莫의 권위를 높였다고 한다. 그러나 金印紫綬는 일반 外臣의 왕에게 준 印이기 때문에, 이와 同格의 印을 宣帝가 昆莫에 贈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宣帝가 大·小昆莫에 준 印은 적어도 大昆莫에는 「金璽」임에 틀림없다.

『漢書』西域傳에 따르면, 成帝(在位 B.C. 33~B.C. 7) 말년에는 昆莫의 侍子(人質)가 漢都 長安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宣帝가 大·小昆莫에 印(아마도 金璽)을 주고, 인질도 들인 것이다. 그만큼 人수 賜與를 통해 漢의 지배가 강화된 것이다. 西域傳 康居 條에 보이는 成帝 永始(前 16~前 12)年間으로 생각되는 西域都護 郭舜의 上言에 따르면, 당시 烏孫도 漢에 「臣」이라고 칭하고 있었다. 印綬를 주고부터는 臣禮를 취한 것이다. 『漢書』匈奴傳에 의하면, 呼韓邪單于가 귀순을 결의한 것은 甘露 元(前 53)年이다. 이는 左伊秩訾王이 「지금, 漢은 바야흐로 강성하며, 烏孫·城廓의 諸國은 모

두 臣妾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한 것에 근거한다. 그러면 宣帝가 昆莫에 인수를 준 것은 帝의 晩年 무렵일 것이다. 따라서 인수 賜與와, 昆莫이 「臣」이라고 칭한 것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漢書』西域傳에 烏孫을 「都護에 屬하게」 했는데 部로 넣은 것은, 宣帝의 晩年 이후의 상황이다.

그러나 烏孫에 대해서는 漢이 「昆莫」이라는 칭호를 공인하고 있었다. 昆莫의 上書에도 이를 칭하고 있는 것은, 匈奴單于와 같이 外臣 중에 特例이다. 다만 『史記』 『漢書』 중에 烏孫을 「客臣」으로 했다고 하는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漢이 烏孫을 우대할 모습은 처음에는 隣對國과 朝貢國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뒤에는 外客臣 匈奴單于보다는 낮으나 일반 外臣보다는 약간 높은, 初期 外臣時代의 南越王國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南越是 「王」號로 中國流이지만, 이는 南越에 中國流의 제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임에 지나지 않는다.

흉노를 제외하면, 南越과 烏孫은 漢代에 있어 南北의 두 大國이었다. 漢이 南越에 대한 태도가 처음부터 고압적이었던 것은 南越 땅이 일찍이 秦의 영역 內인 점, 그리고 南越과 제휴할 수 있는 大國이 남방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해 北方의 烏孫에 대해 취한 漢의 태도는 처음부터 南越 이상이었다. 外臣으로 된 뒤도 또 「昆莫」이라고 하는 고유의 왕호가 공인된 것은 烏孫이 大國이고, 또한 그들의 항배는 흉노·서역의 형세에서 중대했기 때문이다. 『漢書』西域傳에 따르면, 烏孫은 서역 중의 最大國으로 戶 12萬, 口 63萬, 勝兵 18萬 餘였다고 한다. 이것이 匈奴單于에 다음의 지위로 우대된 까닭이다. 前漢 末인 前 1(元壽 2)년 烏孫의 大昆莫 伊秩靡는 南匈奴의 烏珠留若鞮單于와 같이 입조하였다. 匈奴單于는 外客臣으로 된 이래 자주 입조했으나, 烏孫 昆莫의 입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烏孫은 이미 漢의 外臣으로 되어 있었을 터이다. 『漢書』西域傳에 「漢은 이로써 번영하게 되었다」고 하는 서술은 烏孫의 大昆

莫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그 입조를 환영한 漢의 심경을 회상한 것이다.

3. 漢帝國의 구조와 그 이론

(1) 황제의 이상과 현실

漢帝國이 內臣·外臣·外客臣·絕域의 朝貢國·隣對의 國이라는 구별을 세우고, 그 帝國像을 형성한 사실을 지금까지 규명하였다. 또 그 구체적인 예도 지적인 대로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생긴 이유와 이 구별을 관통하는 이론 검토가 아직 남아있다.

秦漢 황제의 이상은 지상의 모든 인간이 황제의 덕에 化된다는 것이며, 은택은 牛馬에까지 미친다는 것이었다. 『史記』 始皇本紀에 보이는 琅邪臺刻石文 중에는,

「천지사방[六合]이, 황제의 영토였다. 서쪽으로는 流沙를 건너고, 남쪽으로는 北戶의 끝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東海를 가지고, 북쪽으로는 大夏를 지났다.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는 곳 가운데 신하를 칭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고, 또다시 「皇帝의 德은 四極을 存定하고」 「澤은 牛馬에 미친다」고 하고 있다. 모든 세계가 지배자 황제의 일부분이고, 그 의지를 받들어 작용하는 상태의 실현이야말로, 황제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배의 현실은 多岐하였다. 漢도 국내에는 군현제도를 세워 漢의 禮·法을 철저히 하고, 諸侯王國이라고 해도 漢의 禮·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본래 생활 습관이 먼 이민족을 지배하는 경우는 漢의 禮·法을 상대방 국내에 철저히 시키는 쉽지 않았고, 禮·法의 徹底度 차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말을 바꾸면, 德化의 정도가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상대방

이 갖추고 있는 고유의 禮·法에 눈을 감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德化의 정도, 나아가서는 禮·法의 浸透度 차이를 바탕으로, 前記의 內臣에서 絕域의 朝貢國까지의 구별을 성립하였다. 隣對의 國은 漢 군주의 德이 미치지 않고, 독자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다시 漢과 匈奴·南越의 관계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前 52(甘露 2)년 귀순을 신청한 呼韓邪單于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되었다. 흉노의 선우는 「百蠻의 長」上位로 하고, 그 席次는 內臣諸侯王의 아래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太子太傅 蕭望之는,

「單于是 正朔이 행해지지 않은 곳으로, 敵國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특별하게 不臣의 禮로 하고, 자리는 諸侯王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外夷가 稽首하여 藩을 칭해도, 中國이 양보하여 臣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곧 羈縻의 誼이며, 謙亨의 禮로 한 것입니다. 書에 ‘戎狄荒服’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來服이나 荒忽이 수시로 변하기에 일정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匈奴의 後嗣라고 하여, 갑자기 새나 쥐처럼 숨어버리고, 朝亨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畔臣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信讓으로 蠻貊에 대하여, 은택을 구석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萬世에 이어나갈 방책입니다.」

라고 하였다(『漢書』蕭望之傳).

이를 보면, 絕域의 朝貢國과 같다고 하면, 畔해도 특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絕域의 조공국은, 그 國의 의지에 있어 漢 군주의 恩德을 받고 있으면 좋고, 漢의 쪽에서도 그것을 양해하고 있다면 좋다. 여기에 반해 外臣은, 臣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外臣으로 되면, 外臣 상호의 질서에도 漢의 제약이 미쳤다. 그것은 武帝 때 東隣인 閩越에 침공당한 南越이 원

조를 구한 上書에 의해 알 수 있다. 즉, 『漢書』 南越傳에 의하면, 그 上書에는

「兩越은 모두 藩臣으로 됐으니, 함부로 병사를 일으켜 서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東越(閩越)은 멋대로 병사를 일으켜 臣을 침범하니, 臣은 감히 병사를 일으키지 않고, 오직 天子에 詔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한다. 이는 外臣이지만 「職約」이고, 「天子의 約」(『漢書』 嚴助傳)에도 있다. 당시는 閩越·南越이 모두 漢의 外臣이었다. 따라서 서로 兵을 내어 다투는 것은 漢 帝國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며, 이를 금지하는 約이 「天子의 約」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이는 漢의 권위가 왕성하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漢의 外臣으로 될 것을 희망한 사실에 관계가 있다. 外臣으로 된 쪽은 朝貢國이라기 보다는도 교역에 이익이 있었다. 그렇지만 外臣으로 된다면, 더욱 자국의 안전이 漢의 권위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었다. 入貢하여 臣屬한다고 하는 사실 속에 숨어 있는 政治性을 간과해서는 안된다.³⁰⁾

外客臣도 臣이기 때문에 멋대로 이탈은 허락되지 않지만, 外臣보다도 敬遠됐던 존재였다. 이는 呼韓邪單于를 外客臣으로 할 때 宣帝의 詔에 보이는

「지금 匈奴單于는 北蕃을 칭하여 正朔(正月 元日)에 朝하지만, 朕에는 미치지 못하며, 德이 弘覆할 수 없다, 이에 客禮로 그를 맞이한다.」

30) 栗原朋信, 前掲『秦漢史の研究』258~262쪽.

라고 하는 것이며(『漢書』蕭望之傳), 宣帝의 덕이 미치는 쪽이 불안전하다고 하는 이유에 따라 外客臣으로 한 것이다. 宣帝는 呼韓邪單于에 冠帶·衣裳·璽綬 등을 하사했기 때문에, 이는 곧 漢의 禮制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匈奴 국내의 諸制度와 형법은 흉노 고유의 것으로 행해지고, 흉노 민족에 대한 單于의 주체성은 간섭을 받지 않았다. 물론 선우가 漢의 禮를 遵奉하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받았으므로 法에 따랐지만, 그것은 單于에 한정되고 配下의 흉노 민족 전체와는 관계가 없다. 南越王과 일반 외신도 성질은 이와 같지만, 外客臣의 경우는 더욱 一段과 德化의 사정이 얹었다. 그것은 匈奴單于라고 하는 漢의 爵制 중에 보이지 않고, 흉노 고유의 君主號 공인이라는 사실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烏孫의 昆莫도 같았다는 점은 이미 서술하였다.

(2) 德化의 이론과 조공

絶域의 朝貢國에 대해 고찰하면, 朝貢國 중에도 漢 皇帝의 德이 미치고, 그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일부분의 禮的 요소가 더해지는 경우, 즉 外臣的인 朝貢國과, 단순히 德化만으로 禮的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前者는 臣屬하지 않지만, 冠帶·衣裳·印綬 등을 받고, 조공의 보상품을 얻어 돌아가는 國이다. 後者는 순수한 朝貢國으로, 德化의 증거만 있으면 성립한다.

漢의 印章 제도에서 결론하면, 前者에 해당하는 조공국으로 나는 後漢 光武帝부터 인수를 贈된 倭의 奴國을 들고자 한다.³¹⁾ 본론 중에도 冠帶만을 주었던 例가 있다. 後者의 경우는 이른바 絶域의 朝貢國으로 실제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漢代에 유행한 周와 越裳國의 관계를 전하는 설화이다. 이는 본래 『尙書大傳』에 있지만, 『後漢書』 西南夷傳에 인용된 것을 보면, 그 대략의 의미는

31) 栗原朋信, 前掲「漢帝國と印章」336~344쪽.

「예전에 交趾의 남쪽에 越裳國이 있었다. 周公 居攝 6년에, 여러 통역을 거쳐, 이 나라에서 白雉를 바쳤다. 이때 成王은 이 白雉를 받아야 할지 말지를 周公에 물었는데, 주공은, “덕이 상대방에 미치지 않을 때는, 君子는 상대방의 質을 받지 않고, 또, 政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臣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白雉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됩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越裳國의 사자가. “우리나라의 老人이, 오랫동안 월상국에 天災가 없는 것을 보면, 중국에 聖人이 나타났음에 틀림없고, 곧장 조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하여, 白雉를 지참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周公은, 월상국에 周의 덕이 미치고 있는 증거임을 인정하고, 白雉를 받아 周의 종묘에 바쳤다.」

라고 하게 되었다. 이를 보면, 조공을 받음에는, 德化가 미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臣」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政」이 미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政」은, 帝王의 의지가 강제력을 동반해서 드러나는 것이며,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따르면 「禮」와 「法」이다. 요약하면, 帝王이 제정하는 禮·法이 상대방에 미치고 있을 때는 「臣」이고, 단순히 德化만 미치면 조공국이다. 『漢書』西域傳에 보이는 「都護에 속하지 않고, 와서 貢獻하면, 서로 상응하여 보답했고, 감독하거나 통솔하지 않았다」고 하는 絕域의 나라들이, 朝貢國의 部에 들어간다. 거기까지는 확실히 德이 미치고 있어, 漢의 황제는 「天子」로서 여기에 대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西域傳을 시작으로 다른 外國傳의 기재 예를 보면, 絕域의 조공국에 대해 漢의 황제가 「天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後漢의 蔡邕의 獨斷에서, 「天子는 夷狄이 칭하는 바」로 보고 있는 것은, 그 뜻일 것이다.³²⁾

德化가 미치지 않는 것은 漢初의 匈奴가 그 예이며, 隣對國으로 대등한 禮로 응하였다. 따라서 和親이 성립하고 昆弟의 관계에 봐도, 「入貢」 「朝貢」 등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의 군주를 중심으로 세워 형성된 세계 帝國의 구조는 秦漢경우로 말하자면, 황제의 德化를 걸치레로 형성된 것이다. 德化에 혜택받지 않는 세계는 帝國의 틀 밖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황제의 德은 해당 황제의 개성을 떨어뜨리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만일 다른 德이 황제를 감화했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해당 황제의 덕으로 되어 일방적으로 작용해갔다.

이렇게 보면, 「德化」란 중국 군주의 德에 상대방이 동화되는 것이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개성의 전부, 내지는 일부분이 중국 군주의 德으로 化되는 것이며, 자기 개성의 상실을 조건으로 한다. 一人의 중국 군주 아래, 모든 지역의 인간 또는 민족이,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던 개성을 상실하고, 중국 군주의 권위 고양을 위해 手足으로 되어, 一人만의 세계 성립을 이상으로 한 것이, 「德治」 「德化」를 구가하고 있는 고대 중국의 帝國像이다. 그래서 잠재한 無理와 모순을 용인하면서, 하나의 정리된 世界帝國像을 내부에 세우려고 할 때, 지금까지 지적해 온 內臣에서 絕域의 조공국까지의 구도가 내세워진 것이다. 漢은 이 구도를 要意하여 周邊 諸民族과의 관계를 전개하였다.

(3) 漢帝國의 縮圖

마지막으로 漢代에는 內臣부터 朝貢國까지 황제의 德化에 스며들었던 分子를 한 곳에 모으게 한 儀式이 존재한 사실을 지적해두고

32) 山田統, 1963, 「天下と天子」, 『國學院大學紀要 -國體論纂 上-』; 安部健夫, 1956, 『中國人の天下觀念』(하버드 燕京 同志社 「東方文化講座」 6) 同志社大學; 小倉芳彦, 1965, 「裔夷の俘 -左傳の華夷觀念-」, 『中國古代史研究』 2, 吉川弘文館. 『禮記』 曲禮 下에 「君天下曰天子」라고 하고, 鄭玄의 注에 「天下謂外及四海也, 今漢於蠻夷稱天子, 於諸侯稱皇帝」라고 한다.

자 한다. 그것은 明堂의 祭儀, 皇帝의 廟祭, 正月의 元朝의 會였다.

先秦의 書인 『荀子』의 正論篇에 의하면, 「五服」은 와서 제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의 內·外 구별이라는 점으로 보고, 外에 속하는 것만을 지적한다. 『禮記』의 明堂位에도 九夷·八蠻 이하가 門外에 아우르게 되어 있고, 『孝經』의 聖知章에도 옛 周의 郊祀에 즈음해서 「四海 중은 職으로써 와서 祭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漢 平帝 때인 5(始元 5)년 明堂 助祭에는 蠻夷·殊俗도 助祭했듯이(『漢書』 王莽傳에 보이는 九命의 錫의 策文),³³⁾ 『後漢書』 明帝紀에 따르면, 59(永平 2)년 明堂의 祭에는 「공물을 바치러 온 百蠻, 烏桓·濊貊이 모두 와서 祭사를 도왔으며, 單于의 侍子·骨都侯 역시 모두 陪位하였다.」하였다. 게다가, 章帝紀에 따르면, 85(元和 2)년의 泰山 麓의 明堂 祭에는 「要荒의 四裔로, 沙漠의 북쪽, 葱嶺의 서쪽, 冒衫의 무리는, 먼 길[懸度]을 건너고, 막히고 험한 길[阻絶]을 뛰어넘어, (中略) 모두 와서 助祭했다」고 한다.

또 中묘의 祭에 대해서는, 『漢書』 夏侯勝傳에 보이는 宣帝의 詔에 武帝가 四夷를 토벌한 결과 「百蠻을 거느리고 굴복하니, 塞를 두드려 스스로 이르렀으며, 珍貢은 宗廟에 진열되었다」고 하고, 『後漢書』 和帝紀에도 「遠國의 진귀한 음식[珍羞]은 본래 宗廟에 奉薦한다」고 하여, 앞서 든 周公과 白雉의 설화에 통하는 점이 있다.

正月 元日의 조회에 대해서는 班固의 「東都賦」에서 「이날에, 天子는 四海의 圖籍을 받고, 受け, 萬國의 珍貢을 받는다.」(『文選』卷1)고 하고, 應劭의 『漢官儀』에도, 이날은 天子가 德陽殿에 臨御해서 「蠻貊과 胡羌이 조공하고, (中略) 九賓의 撤樂을 만든다」고 한다. 이 撤樂에는 奇術도 포함되고,³⁴⁾ 安帝 때 永昌郡을 통해 擲國王이 바

33) 『漢書』卷99 上에 策文이 실려 있고, 그중에 「是以四海雍雍, 萬國慕義, 蠻夷殊俗, 不召自至, 漸化端冕, 奉珍助祭」라고 한다.

34) 이들의 것은 『漢官典職儀式選用』 『漢官』 등에서도 보이고, 孫星衍 校集, 1967, 『漢官六種』 2冊(四部備要), 中華書局, 上海에 따른다.

친 大秦國 幻人의 기술 등도 翫年 조희 때에 연출되었다.

다만 漢代에 실행된 明堂의 祭는 起源도 새롭고, 또 朝會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해도, 宗廟의 祭에 異民族이 참여하는 것은 廟祭의 본질을 同族의 祭儀라고 해석하는 한, 異質의 分子를 포함하는 셈이다. 이는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³⁵⁾ 또 그 변화는 어떻게 이론으로 지지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투고일: 2022.12.25, 게재확정일: 2022.12.26.]

35) 『史記』卷6, 秦始皇本紀, 二世皇帝 元年條의 群臣의 말에서 「古者天子七廟, 諸侯五, 大夫三, 雖萬世世不軼毀. 今始皇爲極廟, 四海之內皆獻貢職, …」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역자 부기

이 논문의 저자인 栗原朋信은 漢의 국가 구조를 內臣과 外臣으로 구분한 연구자이다. 즉 內臣은 京師 및 郡縣의 관료, 諸侯王·列侯 이하 有爵者가 해당하며, 모두 황제의 德化를 입고 禮·法을 받드는 대상이다. 外臣은 주로 異民族을 대상으로 하고, 禮를 보급할 뿐, 法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內臣과 外臣의 차이는 璽印의 격식에도 반영됐다고 하였다(栗原朋信, 『秦漢史の研究』).

이 논문은 그러한 기존의 주장에 더하여, 外臣은 황제와 직접 관계를 갖는 이민족 군주에만 해당되고, 그 아래 세력은 민족 독자의 禮·法을 행한다고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栗原朋信의 內臣-外臣 구분론은 西嶋定生の 隋唐 시기 책봉 체제 연구나 工藤元男의 秦의 천하 인식 연구, 熊谷滋三의 ‘蠻夷降者’ 연구 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본학계 내의 秦漢時代史 논고 등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栗原朋信이 內臣-外臣 논리를 漢代 전반에 적용해서 설명했다는 점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漢初에 중앙과 諸侯王國은 행정·경제·군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념상 ‘外’ 신하였다고 보고, 애초 일괄된 국가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漢初에는 冠帶印綬나 의복 제도에 따른 준별 또한 불분명했다고 한다. 그 구체적 구분이 가능하게 된 시기는 武帝期로 추측한다(阿部幸信).

禮와 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內臣과 外臣의 이분법적 이해 자체를 비판하고, 漢이 외부 집단의 실정에 대응한 각각의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史記』에서 外臣이란 단순히 ‘他國을 섬기는 자’ 정도의 용례로 주로

활용됐고, 栗原朋信의 해석은 南越·朝鮮 정도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漢代 諸侯王國은 실질적 독립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栗原朋信이 정의한 ‘外臣’은 諸侯王國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高津純也).

사실 漢代 前半期の 동아시아는 漢, 南越, 匈奴, 衛氏朝鮮 등, 여러 帝國과 王權이 병존하고, 그들 사이에 정치적 중층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武帝 시기의 원정으로 郡縣化가 실현됐고, 중층 구조의 해체, 즉 內臣-外臣 구조도 해체를 맞이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外臣은 漢帝國의 형성 과정에 출현한 주변 지역의 왕권에 대한 독자 규정이며, 武帝期에 帝國 편성의 완성과 동시에 소멸시켜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渡邊信一郎).

역자의 생각에는, 연구사적으로 栗原朋信의 주장은 초기적 요소를 띠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세부적 또는 자료 용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의를 제기할 요소도 많다. 주지하듯이 外臣은 『史記』 朝鮮傳에도 언급된다. 衛滿朝鮮의 대외관계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栗原朋信의 주장에 대한 재검토나 그동안 쌓여온 일본 학계의 연구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 岡崎敬, 1968, 『『夫租蕤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 岡崎敬, 1968, 『『漢倭奴國王』金印の測定』, 『史淵』 100.
- 鎌田重雄, 1962, 「漢の郡國制度 -王國の官制-」, 『秦漢政治制度の研究』, 日本學術振興會.
- 久村因, 1969, 「犍爲郡開置の年代について」, 『中國古代史研究』 3.
- 藤田豊八, 1933, 「葉調・斯調・私訶條につきて」, 『東西交渉史の研究 -南海篇-』, 岡書院.
- 藤澤義美, 1969, 『西南中國民族史の研究』 大安.
- 米田賢次郎, 1968, 「前漢の對羌戰鬪に關する二,三の問題」, 『田村博士頌壽東洋史論叢』, 京都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 山田統, 1963, 「天下と天子」, 『國學院大學紀要 -國體論纂 上-』.
- 衫本直治郎, 1956, 「秦漢兩代における中國南境の問題」, 『東南アジア史研究』 1, 巖南堂.
- 三上次男, 1966, 「樂浪郡社會の支配構造と土着民社會の狀態」,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 西嶋定生, 1961, 『中國古代帝國の形成と構造』 東京大學出版會.
- 小倉芳彦, 1965, 「裔夷の俘 -左傳の華夷觀念-」, 『中國古代史研究』 2, 吉川弘文館.
- 安部健夫, 1956, 『中國人の天下觀念』, 同志社大學.
- 栗原朋信, 1969, 「漢帝國と印章」, 『秦漢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栗原朋信, 1969, 『『封爵之誓』についての小研究』, 『秦漢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後藤均平, 1968, 「後漢書所見越南三郡反亂記事小考」, 『新潟大學人文科學研究』 33.
- 後藤均平, 1969, 「徵姉妹の反亂」, 『中國古代史研究』 3, 中國古代

史研究會, 吉川弘文館.

孫星衍 校集, 1967, 『漢官六種』 2冊(四部備要), 中華書局.

王國維, 1956, 「尼雅城北古城所出晉簡跋」, 『觀堂集林』卷14, 藝文院書館, 臺北.

雲南省博物館, 1959, 『雲南省晉寧石寨山古墓群發掘報告』, 文物出版社, 北京.

俞偉超, 1963, 「“大武開兵”銅戚與巴人的“大武”」, 『考古』 1963年 3期, 北京.